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리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남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高同窓會報

편집 / 제작 :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발행처 :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1968년 6월 1일 창간 | www.kyungnam.or.kr | 제 398호 – 2013년 9월 5일 발행

6.25 때 우리 동문 10명, 한 곳에서 '떼죽음'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아침 구보 중 적 기습 받아
전사자 17명 중 10명이 우리 동문...그 중 한 명은 '무명'

현재까지 파악된 6.25전쟁 때 전사한 우리 동문은 모두 35명. 이들 중에서 10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산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들 10명의 전사자 중에서 9명은 신원과 군번, 계급 등이 모두 확인됐으나 한명은 '경남고 4회로 성이 박씨'라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이름은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산화 = 우리 동문 10명이 떼죽음 당한 것은 1950년 10월 21일 아침 6시경이었다. 이들은 모두 현병으로 입대, 헌병 2대대 9중대에 배치돼 있었다. 9중대는 당시 원산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군 김화에서 야영을 하고 이날 아침 점호 후 단체로 구보를 하다가 매복 중이던 적의 기습을 받았다.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하던 인민군과 지리산공비들이 산 능선을 타고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야영하던 아군을 보고 주변 숲 등에 매복, 기습 공격한 것이다.

구보 중에 기습을 받은 9중대 1백90여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전사한 아군은 17명, 실종처리된 사람은 42명이다. 전사자 17명 중에서 우리 동문이 10명이나 되는 것은 당시 우리 동문들이 주로 헌병으로 참전해 이 중대에 많이 배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 이름 모르는 '4회 동문' = 전사한 우리 동문 10명 중 신원이 밝혀진 사람은 △4회 전은달, 이형복 △5회 김종수, 이정희, 이성준 △6회 박동식, 손만수, 오흥식 △7회 이보상 등 9명. 나머지 한 명은 '4회 동문'으로 '성이 박씨'라는 것만 밝혀졌을 뿐 이름은 알 길이 없다.

이 '무명의 4회 동문'이 알려진 것은 당시 현장에서 시신들을 수습했던 김영복 동문(5회, 전 국회의원)의 증언에 의해서다. 김 동문은 당시 헌병7중대 소속으로 9중대가 기습당하기 전날 같은 중대 소속 이현덕 동문(6회)과 함께 포로 2백여명을 트럭에 싣고 서울의 육군형무소로 이송하고 복귀하던 중 포천에서 그날 아침 9중대가 기습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동문은 그 이튿날 7중대의 전초(前哨)가 돼 김화로 진격해 들어갔다. 가는 길에 적의 총에 맞고 민가에 숨어있던 박우재 동문(6회)을 구해내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김 동문은 3구의 전사자 시신을 직접 수습했는데, 이 중 2구가 이정희 동문(5회)과 '박 모 동문(4회)'의 시신이었다는 것이다.

김 동문은 "4회 박 동문은 부산 서대신동의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에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박 동문의 시신임을 확인하고 매장하기 전에 그의 군번줄을 목에서 떼어내 부대에 제출했다. 당시 땅이 좀 얼어 있어서 매장할 때 애를 먹었다"고 회고하고 "그의 성은 아는데 이름은 아무리 애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 했다.

◇ '박 모 동문'을 찾아라 = 6.25 참전 및 전사 동문을 조사하고 있는 배중현 동문(7회, 서울현7학병동지회장)은 김 동문으로부터 이같은 증언을 듣고 '4회 박 모 동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애 쓰고 있다.

배 동문은 우선 총동창회명부에 나와 있는 4회 명단에서 박씨 성을 가진 30여명을 추려 일일이 수소문했으나 김화에서 전사한 박 모 동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배 동문은 또 "박 모 동문의 형이 당시 경남고에서 기하 또는 대수를 가르친 수학선생이었다"는 이야기가 들려 알아봤으나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또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통해 헌병 2대대9중대 소속 전사자명단을 일일이 대조해봐도 비슷한 사람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배 동문은 "김영복 동문이 박 모 동문의 군번줄을 부대에 제출했는데도 당시 혼란 속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전사자명단에서 누락된 것 같다"며 "전사한 사실은 확인되는데도 이름을 몰라 '무명'으로만 기록해야하니 이 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또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김기춘 동문, 청와대 비서실장 됐다

김기춘 동문(12회, 전 법무장관)이 지난 8월 5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발표하면서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입법 · 사법 · 행정에 걸쳐 탁월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으로 시원공익재단 이사장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종합적인 균형감각을 갖춘 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 발표에 동석한 김 신임 실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지난날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경험한 국정 경험과 의전 경험을 되살려 대통령의 국정 구상, 국정 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미력이나마 성심성의껏 보필할 각오"라고 소감을 밝혔다.

<3면에 관련기사>

'이우환 동문 전용전시관' 부산에 생긴다

'세계적 거장'...전용 전시관은 일본 이어 두 번째
부산시립미술관 내에 건립...2015년 개관 예정

'현대미술의 세계적 거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우환 동문(경남중 10회)의 전용 전시관이 부산시립미술관 내에 들어선다.

지난 7월 15일 오후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이 동문은 '부산시립미술관 부설 이우환 갤러리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산시는 일본 나오시마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2010년 개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동문의 이름을 딴 전시관을 갖게 됐다.

이 전시관이 내년 말 완공되면 이 동문은 자신의 작품 15점 내외(회화 8점과 조각 6점 등)를 기증, 2015년 상반기부터 전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우환 동문(오른쪽)이 허남식 부산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6~7면에 인터뷰와 작품소개>

이번 호도 기사 넘쳐 28면으로 증면 발행

* 대통령 비서실장 된 김기춘동문은 누구? – 3면
*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동문의 작품세계와 인터뷰 – 6~7면
* 부산고 출신의 특별기고 '청마산우회 이야기' – 11면
* 무더위 속 자전거로 서울~부산 주파한 30회 동기 8명 – 13면
* "욕 듣더라도 소신껏 일해 후회는 없다" 강만수 동문 인터뷰 – 17면
* 새 연재 〈우리말 우리글 바르게 씁시다〉 – 24면

원형교사 문화재등록 최종심의 늦춰져

당초 8월 중에 있을 예정이었던 모교 원형교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심의가 오는 10월로 늦춰졌다.

최종심의가 늦춰진 이유는 서류미비 때문. 문화재청이 최종심의를 앞두고 지적공사에 의뢰, 측량을 해 본 결과 원형교사가 앉은 자리의 땅 3필지 중 한 필지가 부산교육청 소유가 아닌 교과부 소유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제출하면 오는 10월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최종심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원형교사 설계자는 '이천승' 아닌 '이영래'

김정신 동문(24회), 근거자료 발굴...새로운 사실들 밝혀내
추월영 교장이 공사 직영...현장감독을 '정임수'에게 맡겨

모교 원형교사를 설계한 사람은 당초 알려진 '이천승'이 아니라 '이영래'라는 이름의 건축가라는 사실이 김정신 동문(24회, 단국대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김 동문이 찾아낸 해방 후 지어진 주요건축물의 사진을 수록한 '건설화보집(1958년 발행)'에는 당시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남고등학교의 원형교사를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설계자 이영래'로 명시돼 있다.

김 동문은 이를 근거로 이영래씨(2006년 작고)의 아들 이영준씨를 찾아내 그로부터 이영래씨가 원형교사 준공식에서 당시 추월영 경남고교장으로부터 받은 감사장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감사장은 추월영 교장이 '설계자 이영래'에게 준 것으로 "본교교사 신축에서 한국 최초의 원형교사를 설계하여 현황과 같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공로에 대하여 감사를 올리며 기념품을 드리나이다"라고 적혀 있다. 감사장을 준 연월일은 '단기 4289년 2월 30일'로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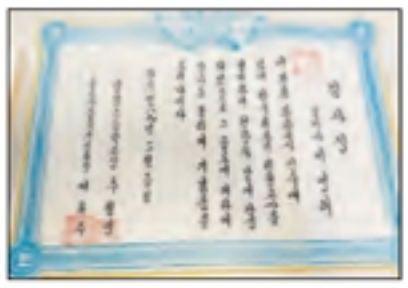
김 동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영래씨는 일본 동해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대학 고등공학교 건축과(3년과정)를 졸업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 경성부 기사로 재직했고 원형교사를 설계할 당시에는 문교부 기술교육국 과학진흥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영래는 원형교사 말고도 경남공고, 영도경찰서, 충남방직공장, 인천여자중학교 등을 설계한 것으로

1958년 발행된 건설화보에 소개된 원형교사. 설계자와 현장감독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공사비는 '6천6백만圓'으로 적혀 있다.

조사됐다.

또 김 동문이 발굴한 건설화보집에는 원형교사의 시공자로 '경남고등학교 直營(현장감독 鄭任守)'이라고 적혀 있다. 이로써 추 교장이 공사를 직영하면서 시공을 현장감독인 정임수에게 맡겼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문화재청이 원형교사의 문화재등록을 예고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본 '정경호'라는 여성(부산거주)이 문화재청에 "경남고의 원형교사는 나의 아버지 정임수가 공사를 총감독했고, 그 공로로 추월영 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연락해 왔다.



설계자 이영래가 추월영 교장에게서 받은 감사장. '단기4289년 2월 30일'에 준 것으로 돼있다. 서기 1956년이다.

이에 김 동문은 딸 정경호씨로부터 정임수가 일본에서 공부했으며 우리말을 잘 할 줄 몰라 원형교사 공사감독을 하며 일꾼들에게 지시할 때는 친척 한 사람이 중간에서 우리 말로 통역하도록 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김 동문은 "현장감독 정임수가 당시로서는 역량 있는 전문 기술자였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지은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형교사가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의 자재와 시공조건에서 보면 원형교사의 외부 과면처리나 내부의 나선계단 등에서 탁월한 시공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손영태 동문(31회), 모교에 1억원 기탁

교육기부협약 체결, 3년간 나눠서 내기로

손영태 동문(31회, 주식회사 케이씨 대표)이 모교 경남고에 앞으로 3년간 1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겠다며 지난 7월 17일 모교에서 교육기부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에 따라 손 동문은 올해와 내년에 각 3천만원씩을, 내후년에는 4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내게 된다.

손 동문은 이날 "후배들이 창의적 인재로 자라나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강태 교장(30회)은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학생복지 등에 발전기금을 사용,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범도 본부동창회장(22회), 황유명 본부동창회 사무총장(29회), 류명석 학교운영위원장(31회)과 학생대표, (주)케이씨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동문바둑대표팀, 서울고팀 꺾고 16강전 진출

'예스24닷컴 배' 전국고교동문대항 바둑대회

우리 동문 바둑대표팀이 지난 8월 17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전국 고교동문바둑대항전인 '예스24닷컴 배 대회'에서 우승후보로 거론되던 서울고 동문팀을 꺾고 16강전에 진출했다.

이번 바둑대회는 한 대국 당 3명의 선수가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누어 시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동문팀은 오는 10월 12일 덕수고와 8강전 진출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된다.

부산 4개구 통합, 새 지역동창회 생긴다

창립 준비모임...초대회장에 임철호 동문(24회) 추대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등 부산 중서부지역을 통합하는 지역 동창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모임이 지난 8월 7일 자갈치 '오아제'에서 있었다. <사진>

강창수 본부자문위원(21회)을 비롯,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임철호 동문(24회, 오아제 뷔페 회장)을 추대했다.

또 창립총회는 오는 9월 25일 자갈치 '오아제'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역동창회의 명칭과 임원진 구성 등은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동창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동창회 분과위원장 – 동기회 회장 연석회의

본부 동창회 분과위원장과 동기회장들의 연석회의가 지난 7월 18일 광안리 '하모횟집'에서 열렸다.

허범도 회장, 9월 11일 본부덕형포럼 특강

허범도 본부동창회장(22회, 부산대 석좌교수)이 오는 9월 11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본부 덕형 포럼(회장 정량부, 17회)에서 특강을 한다.

주제는 '글로벌 환경과 CEO의 時TECH'.

대통령비서실장 된 김기춘 동문, 그는 누구?

경남고 때 고학으로 공부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격

가난으로 휴학...3학년 때 문과반에서 수석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시합격...승승장구 외모와는 달리 "정 많고 예의 바른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청와대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등에게 대한 임명장을 준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기춘 동문(12회)은 학창시절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고학을 하며 경남고를 다녔다. 거제도 장목면 외포리가 고향인 그는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나와 마산중으로 진학한다. 마산중 때는 형들과 함께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녔다. 중학 졸업을 앞두고 가세(家勢)가 기울자 그는 부친의 권유에 따라 학비가 들지 않는 부산사범학교에 응시, 합격한다. 그러나 마산중 은사로부터 "너는 사고가 논리적이고 성적도 우수하니 장차 법대에 진학해 법관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특차인 부산사범학교를 포기하고 경남고를 택해 합격한다.

경남고 1학년 때 교문에서 찍은 사진. 앞 줄 가운데가 김기춘 동문.

경남고에 입학하자마자 그는 입주가정교사를 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다. 그렇게 고학으로 1년을 버티다가 2학년으로 진급하기 전 1년간 휴학을 하게 된다. 혼자서 학비를 대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낸 부친을 돕기 위해서였다. 당시 담임선생님과 반장이었던 곽정출 동문(11회)이 이런 사정을 알고는 "급우들이 수업료를 모아 대납해주겠다"며 휴학을 말렸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1년간 가사를 도왔다. 이 때문에 그는 입학은 11회로 했다가 졸업은 12회로 하게 된다.

그는 공부를 잘 했다. 경남고 때의 성적표를 보니 2학년 때에는 반에서 66명 중에서 1등, 문과반 전체 1백60명 중에서 6등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3학년 때에는 반에서는 56명 중 1등을 했고 문과반 전체 1백93명 중에서도 1등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생활기록부에는 1학년 때 성격은 '강의(剛毅, 강직하여 굽힘이 없음)'로, 언어(言語)는 '분명(分明)'으로, 동작(動作)은 '단정(端正)'으로 각각 기록돼 있고, 협동, 책임감, 적극성, 통솔력은 모두 '강(强)'이라고 기록돼 있다. 2, 3학년 때는 '인사성 있고 성실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장래 희망은 '법관'으로, 취미는 '낚시질'이라고 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자신이 희망한대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그는 3학년 재학 중에 제12회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다. 서울대 법대 동기생들 중에 그가 유일한 합격자였다. 지난 2011년 3월31일자 동창회보에 실린 '그 때 그 시절 이야기'에서 김 동문은 "(재학 중 사시합격으로) 경남고 때 휴학으로 동기들에 비해 1년 뒤쳐졌던 것을 이 때 따라잡을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검찰에 몸담고 부터는 김 동문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다. 검사 시절인 1974년 육영수 여사의 살해범인 문세광을 조사하면서 범행 자백을 받아낸 일은 유명한 일화다. 검찰의 여러 요직을 거쳐 1988년 제 22대 검찰총장과 1991년 제 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고향인 거제도에서 15 · 16 · 17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했다. 또 1995년에는 KBO(한국야구협회) 총재로 활동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다.

경남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그대로 그는 평소 말과 행동이 반듯하고 차분하다. 성격은 강직하고 매사 성실하다.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지낼 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업무스타일로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의 성품을 알게 해주는 일화가 있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장관이 되기 전까지 백수생활을 했을 때 그는 매일 아침 평소의 출근시간에 맞춰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안방에서 서재로 출근했다가 오후가 되면 안방으로 퇴근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어서 기자들은 "그가 하는 말을 받아 적으면 그대로 문장(文章)이 된다"라고 말한다.

이런 겉면만 보고 그를 "차갑다"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를 잘 아는 동문들은 그를 "정 많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말한다. 누구를 만나도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 스타일이다. 검찰총장 때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고 시절 국어를 가르친 김계곤 은사를 모시고 몇몇 동문들과 함께 점심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동문은 "나이 드신 은사님을 깍듯이, 예의 바르게 모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경남고 생활기록부에 김 동문의 성격을 '剛毅'라고 평하고 있다. '강의(剛毅)'는 '강직하여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언어는 '分明'으로, 동작은 '端正'으로 돼 있다.

어렵게 공부한 탓인지 그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주고 조용하게 후배들을 챙겨주는 자상함도 갖고 있다. 그는 법무연수원장 시절 몇몇 동문들과 오찬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허태열(경남중 18회, 당시 내무부 지방국장), 정홍원(경남중 17회, 당시 법무부 기획부장) 두 동문을 특별히 불러 합석시키기도 했다. 출신 중학교가 다른 두 후배를 챙기는 모습에 참석자들이 놀랐다고 한다. 이 자리에 있었던 한 동문은 "당시 법무부 기획부장이던 정홍원 동문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 있는 점, 당시 내무부 지방국장이었던 허태열 동문이 대통령비서실장 자리를 김 동문에게 넘겨준 것이 재미있다"며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동문과 박희태 동문(11회)과의 관계도 재미있다. 두 사람은 경남고 입학동기이나 김 동문이 휴학으로 1년 늦게 12회로 졸업했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김 동문이 한 회 빨리 합격했고, 법무장관 자리에도 김 동문이 먼저 올랐다. 두 동문은 국회의원으로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나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쟁을 벌였을 때 김 동문은 '친박'으로, 박 동문은 '친이'로 갈라져 활약했다. 두 사람은 사석에서는 서로 말을 놓는다.

김 동문은 경남고 시절을 "가정교사로, 자취생활로 고학을 했으나 돌이켜보면 경남고 그 시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정말 아름답고 보람찼던 한 때였다"라고 말한다.

<김차웅(19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고의 37회가 되겠습니다."

- 뭉치자 37회, Hurrah 경고 ! -

제 37회 동기회 일동 본부 회장 : 유호섭 / 재경 회장 : 안명도

2013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3,223명 (2013년 8월 23일 기준)
★ ( )는 선납부자

1회(2명) 박명현 허종수
2회(1명) 박기화
3회(19명) 김영태 김용해 김희철 류영렬 문병집 박영희 박준양 백영학 손주석 송두호 신정택 신현익 원호출 윤태윤 이 경 이안규 정규일 하덕모 황성남
4회(25명) 김기홍 김상희 김용욱 김용해 김종호 김주호 김희수 문택상 박무열 박석만 박홍기 송호길 신상대 양종하 윤옥경 이남규 임영수 장수호 장영만 정상천 정순모 정치근 조성일 조홍제 황갑생
5회(26명) 김균석 김석호 김은규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김형대 박봉식 박장후 박종구 배종태 손보익 송두성 우명수 유병한 이경옥 임성업 정만오 정인조 정진우 정희준 주범국 진도영 최영철 홍관식 황홍성
6회(35명) 김상엽 김윤용 김태곤 김태환 노재형 문교순 박기복 박종곤 배문수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염희성 오영은 유상환 이강윤 이길상 이현우 임경택 장재수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상철 정승화 조관승 조윤승 조재형 조정규 천산무 최병수 최석원 최인갑 최한병 허 택
7회(47명) 강병희 강창구 구택용 김갑성 김광욱 김명관 김명한 김상현 김영민 김용우 김종순 김중경 김진홍 김태배 남홍우 류상남 박동순 박세량 박영섭 박영식 박재봉 박환배 배건식 배병우 배중현 서우찬 소진은 송외득 양종완 오동환 오장은 원용부 윤용우 윤진헌 이동우 이상주 이진호 이창범 임성극 임의택 정보영 정성보 조덕찬 하근수 함흥주 허종호 홍성완
8회(46명) 강성태 구본섭 권순결 김봉길 김영환 김재범 김진석 김태규 도은영 문 국 문동현 문창화 박동열 박우상 박재범 박희옥 배기현 배덕수 배주원 백낙오 서연수 서진근 손세일 신동춘 안종열 엄대양 이상목 이양희 이윤조 이정윤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춘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이희옥 전영배 조성래 조윤제 지창수 최경태 최윤식 최재혁 홍기성
9회(52명) 강영진 고수홍 김경희 김기학 김동용 김성우 김성탁 김영문 김용환 김이도 김정구 김종호 김 청 노도현 박당희 박영복 박화철 성백규 신석현 신용익 안규현 안병환 원중희 유금열 유병철 윤성태 윤일명 이대규 이영구 이재헌 이주한 장동근 장병국 전인규 정 룩 정민주 정행권 조규양 조성진 조용길 조이호 지삼봉 차상구 차진한 최성욱 최위철 최종현 최한성 하재환 한동대 한득추 홍기표
10회(58명) 고광수 권용슬 김계순 김기훈 김상국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용원 김종슬 김창덕 박가수 박재경 배길순 서철하 송남진 신규태 신대수 심영환 안조만 양현두 오강욱 우병윤 이계창 이근태 이민섭 이봉원 이상배 이승준 이언희 이윤수 이의도 이재순 이정호 이창복 장기상 장인목 장청구 전영대 정기훼 정무길 정상수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상진 조양제 조종제 진 강 최병도 최성열 최해만 하영수 허영백 허영오 황정조
11회(102명) 강병희 강용대 고한준 공상기 곽정출 곽태엽 권병용 권 보 김기주 김달경 김무룡 김병기 김병태 김삼진 김선길 김성규 김수정 김영식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윤택 김인섭 김재곤 김재덕 김재택 김재환 김정수 김종수 김중하 김창하 김태호 김학수 김항곤 김형관 남호현 문정오 박관호 박봉흡 박성우 박수경 박영복 박영하 박용관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배상천 배일규 서영호 서자윤 서진갑 성기득 손봉길 신유기 심재룡 안강태 안경문 양효춘 염한호 오길훈 오완수 오정광 유홍종 유흥수 윤재관 윤태원 이계찬 이균우 이병태 이상석 이상철 이상태 이상학 이성길 이성우 이세영 이정기 이종문 이종백 이종범 이종주 이태순 임근호 장대희 장세원 장영권 정석훼 정운표 제정오 조현도 지창호 채기권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영태 최태원 하영득 현정춘 (박희태 2017년, 조동준 2016년)
12회(104명) 강본순 강창수 공 문 곽진영 구진웅 구창회 권시길 권언호 권연상 김기수 김기인 김두수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석곤 김선일 김수원 김영보 김영수 김용호 김우성 김익도 김일준 김정현 김종련 김종수 김종일 김지명 김지회 김진갑 김창진 김철기 김현주 김홍래 김훈호 김희련 남기용 문재권 문준화 박대성 박문기 박순국 박영윤 박용운 박재영 박정윤 박 창 배기원 배종섭 백승균 백승권 변동만 서병기 서상현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규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옥계한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성대 이수영 이승문 이승태 이영길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일쇄 이준복 이현달 이환훼 임상원 임정명 장동석 장승재 정대식 정성수 정성원 정수복 정외훼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지수남 차민도 한금태 최수행 최신일 하일민 한춘배 한형수 허은도 허정욱 홍두표 황태영 (김부생 2014년, 백승균 2015년)
13회(114명) 강귀동 강영삼 강정문 고송구 구덕건 구문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무조 김민훼 김부조 김상치 김상한 김성대 김소웅 김승언 김신부 김영명 김장웅 김정균 김정성 김정일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석 김홍훼 노일용 문 창 박건일 박안남 박양웅 박영주 박원길 박일웅 박정일 박종락 박진태 박홍일 박홍표 배대결 배정순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문일 송신의 송창식 숨결새벌 신동배 신동조 신명 신민훼 신용태 신하근 심영수 안가연 안준수 양길승 오원수 오한수 윤기갑 윤영우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병한 이상택 이상문 이성빈 이영복 이응재 이정명 이종달 이종일 이준범 이중광 이창열 이창호 이훼세 이태랑 임소훼 임영홍 임진부 임홍조 장용웅 전복룡 전중신 정로상 정연호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달곤 조병성 조용갑 조준탁 조훼현 차영일 최동한 최번영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관수 한병조 한진희 황정대 (김경재 2019년)
14회(88명) 강주신 강휘주 최봉현 김건호 김경수 김공 김도선 김동화 김명정 김무남 김영대 김영식 김영우 김용후 김의웅 김재도 김종석 김창기 김 충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방현 노수덕 류총일 문성필 문운용 박건길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진재 박청길 박청홍 박효건 백태우 변희경 서명성 성이경 손광웅 손영복 송석출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안명수 오태홍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우 이길미 이동식 이명재 이수남 이진우 이창언 이창화 이환균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장우일 전병순 전수신 정선언 정현구 조영봉 조정현 진성태 조규향 최건차 최낙섭 최병태 최충락 하광진 하문수 하찬봉 한규환 한문식 한수길 함영훼 허민영 허 증 황수길 황원재
15회(96명)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남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고태언 구명준 권대식 권승부 김경일 김길영 김뇌명 김명배 김삼곤 김상차 김소헌 김쌍열 김양일 김양정 김염훈 김옥규 김윤배 김정환 김종태 김종한 김준군 김충식 김판열 김학현 김황영 남암순 박복만 박영길 박종석 박찬호 박철양 박효가 배 박 배성훈 백승진 서정욱 손부홍 송길웅 신용기 신현영 신홍규 우효기 오봉석 윤우경 윤휘정 이 건 이동근 이선공 이순구 이승남 이승우 이은수 이재원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일 이 준 장봉고 장영일 장종호 장청길 전영삼 정길수 정동포 정옥종 정준수 정행남 조규증 조영일 조일랑 주정중 최광웅 최병우 최원수 최은호 최의수 최진모 최창석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익찬 황중부 황춘식
16회(106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원경 강인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권의강 김광수 김광용 김길정 김덕찬 김두응 김명식 김박일 김상웅 김연호 김영우 김응진 김인국 김 조 김정우 김종석 김찬문 김철곤 김태일 노상현 문성환 문형식 박광작 박기용 박두영 박민소 박수명 박영기 박용일 박정욱 박종봉 박종영 박춘호 박 홍 방수근 배정희 배 청 서대인 서정호 서태복 서효조 성기식 손송방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양성민 여성국 예광해 오광치 오형철 옥무웅 옥시영 옥윤석 유정호 윤세진 윤효주 이겸일 이경환 이계웅 이규방 이길홍 이동백 이무근 이무영 이성남 이성인 이양근 이영재 이종승 이종훼 이채언 이훼수 이청원 이현규 이효일 임승언 임 실 장사충 정영일 정우광 정원훼 정일성 조운일 조원제 조흥제 차상영 채경일 최윤훼 최정일 하주열 하홍근 한일랑 허 곤 홍정길 황규호 (박수명 2014년)
17회(98명) 감정은 강정일 강청작 권경슬 권화영 김극기 김길우 김길호 김대희 김동윤 김만흥 김무상 김무원 김부근 김성락 김성오 김영환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재봉 김조일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충겸 김홍규 김홍기 남궁성은 박흥식 박가식 박건양 박신도 박영일 박영호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찬 박태길 박흥식 백훼균 서정승 설순욱 손성근 송상훈 송수웅 송유근 송인문 신 종 신홍규 심문섭 양성일 양원모 옥영관 우기남 윤성욱 윤수성 윤효중 이건웅 이국남 이성흡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재형 이정보 이주봉 이형우 임우택 임웅훼 임정수 장길성 장승구 장응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동길 정두호 정량부 정병열 정태일 정형근 제양성 조증언 지인식 천용광 최성호 최홍배 추봉실 허진행 현태일 황성진 하영수 (장승구 2014년)
18회(120명) 갈영수 강대원 강덕용 강만수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고창현 구영곤 김경결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동회 김두천 김두환 김만수 김병대 김사권 김성건 김성수 김성준 김영국 김영옥 김영일 김용기 김재창 김재환 김정규 김종상 김종철 김준길 김형윤 김홍대 노성현 노재근 노정규 노준건 노현길 류종우 문창열 문희억 박건태 박노숙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영복 박영일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정옥 박종구 박종만 박준성 박중수 박호성 박호영 배공내 백기덕 백승래 박덕봉 서재봉 설현기 손영종 손찬규 송수일 신영훼 신인환 양동건 양세수 양용길 오재동 우원호 유영석 윤봉수 이긍희 이대운 이상영 이영호 이재일 이재환 이종순 이충남 이태우 이태준 임채영 장수일 장봉무 전기준 전병희 전상곤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 홍 조성재 최경용 지문석 차명석 천두갑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하영일 하자호 한광수 한기대 한기훼 허도행 허만조 허태열 홍우재 홍창우 황광건 (박호성 2014년)
19회(118명) 강영범 강환섭 고광호 고문찬 공기주 공영섭 권훼현 김경우 김경재 김국남 김대인 김덕규 김명수 김문기 김배호 김봉호 김부환 김석구 김석윤 김성봉 김성욱 김성진 김성희 김순호 김영복 김영우 김영탁 김익건 김일천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남기진 남진현 남태현 노은영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성주 박성훼 박원재 박종화 박준우 박차천 배무삼 서세복 선우일남 성낙출 손말현 손훼수 신윤훼 심재구 안정모 양승수 양하기 오태수 옥인영 우정복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경우 이근식 이기주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성달 이양환 이용수 이용우 이용조 이용흠 이윤홍 이장희 이종명 이종선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현 이창흠 이춘만 임영수 임우근 임채원 임태석 장조훈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규영 정극수 정수남 정용식 정원찬 정태규 정태율 조세현 조순제 조재윤 진수상 최광우 최영식 최정학 최화익 한명섭 한종환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성진 황태경 황태원 (권훼현 2014년)
20회(91명) 강경수 강기훼 강병천 강부덕 강석근 강현진 구본홍 구영남 금석주 김대업 김두영 김병문 김성룡 김세준 김순신 김영훼 김우흠 김원율 김일석 김조동 김종민 김진환 김찬만 김태영 김한성 김향곤 김형기 김형오 김홍직 김화식 남경열 남기석 이석창 이종일 이 준 장봉고 장영일 장종호 장청길 전영삼 정길수 정동포 정옥종 정준수 정행남 조규증 조영일 조일랑 주정중 최광웅 최병우 최원수 최은호 최의수 최진모 최창석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홍익찬 황중부 황춘식
21회(127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강화중 공기화 구본능 구정모 구현수 권용효 권재견 김귀경 김기현 김길서 김대웅 김부곤 김상덕 김상하 김성수 김영삼 김유건 김조영 김재수 김지호 김한규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민경식 박규현 박명문 박봉흡 박상주 박순양 박이윤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방효상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서정원 성상훼 성정근 손원조 송원경 신태윤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오기돈 오태규 우성건 우종득 유일건 육화원 윤대희 윤상훼 윤승근 여환부 이동채 이동춘 이명환 이문수 이성집 이세진 이세형 이순희 이영상 이영훈 이익규 이임덕 이재택 이재홍 이재흡 이종규 이종상 이종열 이준성 이철의 이한석 이 혜 이호수 임경범 임성출 장 호 전기환 장정표 전우성 전재호 정연호 정영천 정익주 정태영 조병규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진영천 진윤구 최규용 최동완 최원종 최은영 최창희 탁원령 한승헌 허영도 허창수 황동규 황병구 황영실 황윤성
22회(109명) 감준홍 강상대 강성봉 강성숙 강호일 고인준 김광국 김광무 김도삼 김동진 김명수 김무술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수열 김영수 김영진 김완식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정곤 김정민 김종인 김진영 김진훼 김형경 남백우 노평호 문성훼 박규묘 박상갑 박승목 박언표 박의근 박재상 박준호 박훼민 박행천 박홍조 박호병 방영수 배병한 배춘식 배훈영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손병용 손연모 손용섭 송갑영 송기영 송현준 안계환 안영수 안진환 안홍훼 엄남기 여상규 오세길 유인조 유재락 윤성복 이경상 이병수 이상협 이성모 이영화 이윤제 이인규 이치백 임강택 임종대 장광훈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봉국 조순태 조정규 조홍기 주성민 주우실 최광욱 최영택 최완식 최학봉 최호림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승조 허 온 허인석 허범도 홍순욱 홍태구 황영환 (송현준 2014년)
23회(141명) 감인홍 강구현 강창보 고용석 곽상인 구대용 구영수 구자섭 권오종 김건일 김경섭 김기열 김대영 김동옥 김두표 김상수 김상영 김상태 김상현 김상현 김석헌 김성주 김영목 김영철 김영해 김영화 김윤관 김익곤 김재봉 김정륙 김정한 김종배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성 김태용 김태정 김태홍 남상률 도명세 류원형 류재호 문규훼 문명욱 문영신 문창호 박광규 박동현 박무열 박문도 박석관 박성희 박수갑 박종만 박종현 박준식 박창수 박철병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상병 서승환 서영수 송영춘 송은재 송재섭 신만동 신언극 신원종 신해철 안범두 안병관 안병율 양희택 오도준 오만석 옥치범 유봉희 유석산 유진무 윤길원 윤순현 윤일한 이동성 이문희 이백기 이병찬 이상렬 이상수 이상운 이성환 이수백 이 순 이승구 이승현 이승호 이윤석 이재동 이정욱 이종현 이준석 이충덕 이충호 장기원 장대익 장동국 장백기 장병규 장찬규 전명식 전상대 전원익 전재홍 정귀출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희원 조민제 조완제 조장래 조한용 조현표 채행윤 최동하 최영복 최인식 최춘흡 최태인 최호덕 하승윤 한명경 한윤길 허근창 현대풍 허병상 허연욱 홍종기 황현욱
24회(135명) 강동우 강영창 강정운 강정원 강창덕 강청흡 공문수 공성철 곽두희 곽재용 구본엘 구자웅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석 김경호 김기준 김동순 김동진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병수 김봉용 김성권 김성득 김성출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범 김영수 김영훼 김운섭 김윤수 김인구 김인훼 김종환 김준기 김중섭 김진윤 김태홍 김학성 김한군 김헌태 남창영 노상우 박댕렬 박성표 박영곤 박요한 박재선 박재춘 박창호 박홍규 백산흡 박창종 배석규 변용준 변정규 서손상 서정대 서정득 석문식 손세영 손종식 신병식 신장우 안명수 안상수 안형모 안형수 양순권 양희복 여옥주 여철우 오덕호 오수복 윤석만 윤재인 윤지현 이기원 이대영 이동진 이상학 이석우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정회 이창무 이한영 이헌국 이효구 임덕훼 임민호 임성근 임훼호 장민재 장세호 장일형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정동화 정명근 정무열 정영석 조백인 조병제 조영수 조용건 조용화 조재진 주정규 진병건 차동렬 차문공 차한영 최석구 최원주 최중식 최진우 최현규 하성기 하재갑 하진태 한상렬 한승훼 허구언 홍용기 황규선 (이수, 최원주, 하재갑 2014년)
25회(105명) 고명식 권수갑 김건우 김경환 김구화 김남일 김대헌 김덕우 김동식 김동진 김문국 김봉훼 김상겸 김상수 김상튑 김성환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명 김영호 김옥권 김옥훼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원봉 김윤수 김익수 김정학 김재홍 김종국 김종윤 김종택 김종현 노태욱 노태호 박거환 박경립 박굉용 박동건 박병훼 박세혁 박점용 박종찬 박현구 배기동 배동명 박댕우 박인국 백승익 백영건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석창재 손국영 송기현 송세경 송영기 승효상 신경학 안희석 양승욱 오양득 윤순기 윤희대 이근만 이동익 이동호 이대우 이명훼 이승욱 이재욱 이찬형 이창훈 이홍성 이홍익 임상택 장대락 장선근 장세훈 장흥석 전영주 정훼수 조경일 조광제 조병욱 조익 주재걸 진익훼 천석수 최동하 최영관 최종덕 최차환 최현튑 탁준길 태명산 한봉재 한준석 허영형 허 택 황곤태
26회(113명) 강도식 강수남 강영녕 고석훈 구영호 권영인 권해국 김경이 김기표 김두천 김만석 김상현 김영섭 김영훈 김윤훼 김재수 김재용 김정곤 김종우 김종훼 김채영 김훼원 김태규 김택영 김 형 김호용 노영석 박경재 박권병 박남식 박능출 박대훼 박두식 박만식 박상호 박오옥 박원상 박원세 박인섭 박의영 박재욱 박종국 박중호 박판기 방홍기 배갑상 배용호 백문현 서준희 서치호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욱호 신대훼 신동춘 신재호 심덕수 심송택 안길효 양국명 양준영 왕정일 왕효석 유근욱 윤경일 윤승용 윤일중 윤종섭 윤흠석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기주 이동일 이명진 이상원 이승무 이성근 이양춘 이유상 이재봉 이정곤 이주형 이창식 이현섭 이희준 임훼호 장경재 장만옥 정현준 정영륜 정익교 정태현 조만석 조일제 차인식 최낙준 최성락 최수일 최영선 최영수 최응덕 최의수 추창구 하성봉 하원규 하주곤 허 현 현동우 홍순하 홍형택 황광수
27회(101명) 강봉호 강영건 강용병 강태영 공민백 공창오 김경수 김경종 김경진 김광익 김광훼 김근우 김민수 김병옥 김병훼 김병추 김상문 김성문 김안석 김영삼 김용섭 김우진 김원용 김일리 김재연 김정희 김종도 김지언 김진명 김태우 김학희 김호균 김홍근 김황열 류재겉 문규상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병주 박승준 박원구 박정민 박종국 박천석 박치호 박효근 반정열 방성근 배병튝 배인환 배효택 성영표 손정식 신한원 양태종 오용환 유성모 윤모성 윤일근 윤정환 윤종탁 윤지한 이광호 이민부 이상용 이상훈 이성득 이요섭 이원훼 이원호 이인규 이종찬 이천식 이 현 이형복 이홍겉 장기남 장원규 장인훼 장창조 장해성 전태원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상곤 정재호 정정길 정훼길 조민제 조봉관 조용수 최영호 최휴진 탁승주 하창우 한수길 허종환 황삼진 황지명 (김경진, 한수길 2014년)
28회(93명) 강현안 고성환 구영소 권수원 권태세 김관세 김만종 김명훼 김부윤 김순신 김영훼 김용석

〈5면에 계속〉

올해가 가기 전에 구독료를...

경남중고동창회보는 본부동창회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 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구독료(년3만원)을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김용섭 김인준 김정유 김종배 김준배 김준연 김창준 김태완 김홍식 노상헌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준 박영규 박임철 박종기 박진국 박진화 배명철 백효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성락문 손광락 송명석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엄호성 옥상곤 유봉수 윤경섭 윤대주 윤덕승 윤명수 윤일희 이경포 이만수 이만재 이승하 이양훈 이용남 이용일 이원철 이윤태 이인재 이정철 이종대 이흥오 임영태 임익성 임재덕 장재용 전광병 전남실 전재만 정두현 정인식 정해영 조대현 조석태 주종목 주창석 천윤철 최경해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명재 한봉석 한수범 한영호 허남식 허병근 (안풍 2022년, 임익성, 김창준 2014년)

29회(137명) 강대용 강병철 강성훈 강희철 곽태섭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 김기수 김기영 김대영 김대욱 김도태 김상규 김석윤 김성문 김 영 김영준 김영훈 김영휘 김용식 김용환 김인술 김인준 김재우 김재헌 김정규 김정렬 김정암 김종명 김종운 김종진 김철오 김태완 김태호 김하원 김호성 류왕성 문백섭 문창견 민동식 박국인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명섭 박병률 박병준 박상길 박성철 박인균 박인평 박준모 박창언 박철환 박효근 배성호 백진영 배현호 백성욱 변종만 서봉교 서석철 서석희 손영보 손재찬 손태권 손홍근 송철호 신영기 신영주 신필균 신현수 신호범 신홍기 안형홍 양승룡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 욱 윤종경 이경호 이공철 이문열 이범익 이병우 이상용 이상진 이석조 이승우 이승호 이승훈 이 양 이양호 이윤상 이재성 이제한 이종포 이준환 이효근 임무택 임상흔 임용호 임채병 장강태 장 만 장현경 전병철 전영상 전장화 전정국 전현수 정 길 정대현 정 란 정순정 정진환 정희용 제영권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주재휘 차의수 최기훈 최원형 최인규 최정만 최종열 한만수 한승경 한승동 허광욱 현계성 황유명

30회(143명) 강 석 강석철 구교익 구을석 권용택 김경수 김계형 김관일 김기수 김기섭 김기업 김백수 김병순 김상현 김성은 김수호 김순구 김영욱 김영일 김영주 김영호 김용한 김욱성 김유기 김인섭 김재수 김재일 김정웅 김종곤 김종진 김종휘 김진권 김진영 김치영 김해곤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도문성 류구현 마창수 박관식 박규완 박모철 박병규 박웅석 박원호 박은수 박재백 박정국 박중배 박진명 박찬민 박희관 배경조 배승한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하수 서헌덕 석대식 성낙도 신구균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안종화 양문섭 오경일 오광태 오충조 옥유전 왕순모 유영록 유재일 유정동 윤영학 윤인태 윤종순 은창용 이광희 이기환 이동근 이명건 이상구 이상필 이성기 이성조 이수성 이영일 이영준 이인호 이종욱 이종천 이종훈 이진걸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전경재 전동균 전은석 전준호 정경목 정광덕 정병효 정부광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용하 정재균 정채화 정태환 정해석 조병훈 조봉제 조순영 정규홍 차원주 채영재 최병철 최석렬 최우철 최원수 최정윤 최진곤 최진권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효용 허선행 황철민 (김영일 2014년)

31회(88명)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기정 김 만 김성구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의석 김인현 김정관 김정덕 김종근 김종호 김태근 김현주 김형수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용환 류명석 민종현 박경수 박덕종 박용관 박인정 박종호 박준석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정우 서규영 서동균 서태교 성보경 손영태 손은정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규열 심재구 안기수 안우현 안중수 양문석 오민일 오용환 옥봉균 옥치호 유봉학 윤석중 이백철 이병곤 이병태 이상률 이수준 이승원 이승진 이원태 이홍규 임종태 정무석 정복재 정원규 정철수 조봉우 조성근 조영기 차인용 천장호 최경우 최상규 최인목 최재선 최재식 최진섭 최해영 하명수 하병관 한문성 허일헌 홍 구 홍성수

32회(43명) 강기상 권학률 김광기 김영길 김종성 김종식 김종주 김종판 김창범 마승철 민길식 박상학 박성구 박진원 박해용 배종찬 신국선 신철호 안병철 안정모 양문성 양성기 오경명 윤종열 이병준 이병훈 이상용 이승건 이태운 이환용 임재균 장영택 정용운 정의주 조준현 최승찬 최영훈 최종호 최춘호 허수철 허 정 황문찬 황성범

33회(58명) 공진환 김계주 김기산 김령환 김법영 김원일 김재선 김종만 김종욱 김종윤 김 철 김태균 김태훈 남경태 노경호 노종현 류장근 민병현 박명진 박민준 박종순 박치호 박태종 배성만 배종현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봉관 송종헌 신동천 신용준 신종구 심희찬 안영훈 예영찬 오상기 오항선 옥숙한 이동근 이순환 이윤조 이지홍 이해승 이형근 장남국 장병찬 장정석 정영호 정인실 최동호 최성현 최영두 최웅남 최호경 최홍원 하지수 홍주성

34회(41명) 곽수균 구본철 김동욱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상환 김수남 김승범 김종염 김중근 김철영 김충환 김태완 김태하 김회영 노승환 노인선 문창영 박민수 박재욱 박철호 서용운 오상민 오송대 오주흔 윤성배 이재완 이정현 이진호 장환근 정노혁 조문국 조시형 진양호 최대수 태일산 홍승철 황경조 황기윤 황병주

35회(57명) 구자민 김관우 김기철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우경 김우신 김윤석 김호성 김홍곤 김환성 나동욱 노규정 류인수 모재현 문흥근 박종수 백현호 변상돈 서석권 성규원 성창용 손수범 손재수 손태섭 안창돈 오시영 옥영희 이광련 이동욱 이동형 이상권 이성환 이영오 이재식 이종찬 이종택 이창성 이현수 임성배 임영규 전상건 전성율 정문종 정성윤 정인철 정지환 정효영 조상규 주귀홍 천현석 최근식 최기평 홍규삼 홍성표 황용순

36회(49명) 강현철 권일복 김관용 김덕환 김동기 김수진 김영훈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진우 김철원 김한교 김희환 남우진 박경환 박명하 박수흥 박영준 박영찬 박용칠 박철종 방진영 서광원 신기성 신용덕 안영호 양석용 윤용수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종상 이하수 임서용 임창섭 장익성 정규영 정인석 정창규 정홍원 제갈재환 조경호 지동섭 최승호 하재철 허만율 홍의창

37회(33명) 강태우 권기원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영광 김영태 김원범 김의렬 김종휘 김태중 김화종 노태건 문진형 박규배 박선호 박용진 석영태 성창수 안용범 양귀수 이상백 이용한 이주홍 장원익 전인수 조성각 최재형 최환승 하승호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38회(32명) 곽동열 권두성 김경태 김기현 김대훈 김문철 김영길 김원철 김재성 김판준 김현민 노광택 류인식 문귀상 문익현 박인철 박준표 박현수 배철호 손태환 안길수 이종명 이한국 유관재 윤경만 이양배 이창호 정인철 정준기 조석태 조용원 차성철

39회(39명) 강대경 김대용 김대혁 김도경 김병기 김용태 김윤홍 김종엽 김희영 노성수 노진곤 박수곤 박용한 박인석 박종국 박평오 배효민 서은식 손석호 심왕섭 안영준 여동섭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영수 이준영 이진호 장동수 장윤혁 전상필 정명섭 정우영 정진해 조금룡 지준환 천용준 최정현 하성포

40회(48명) 강순석 권귀동 권병서 김경환 김근영 김동근 김동하 김성진 김성환 김영진 김종철 문기성 박근성 박무성 박민규 박상범 박상진 박양곤 박재현 박제생 박훈제 배병훈 배영진 배진수 변정태 신상룡 심 철 양영렬 예진원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 기 이영철 이정삼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정찬호 최경진 최용석 최태훈 하성호 현정호 홍재용 황성수 황일도 황창수 (최용석 2014년)

41회(33명) 강석희 권태웅 김덕성 김범성 김봉준 김형률 박보환 박정기 박정의 박철홍 배종덕 백창봉 성종훈 안광근 안영준 윤성보 윤성한 윤종진 이경석 이경호 이수영 이양걸 이영철 이종민 임병호 정용주 조재봉 천성원 하경은 한정호 허종윤 허치회 홍석우

42회(16명) 김병기 김정언 김규식 권영태 김태구 박동식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신봉준 오석주 유기만 이정택 정홍준 제정환 한창형

43회(21명) 강병규 강진만 김기봉 김영식 김준근 김진수 김태형 문기덕 박상순 박진형 박태건 박형규 박형규 심문섭 이승택 이용상 이성훈 이호영 전세준 정용훈 최성필

44회(15명) 김동욱 김왕성 김창용 김학동 남경민 박정민 배봉건 이동렬 이창용 임정훈 전광렬 정종윤 탁정환 허태욱 홍광호

45회(13명) 김병훈 김상수 김상웅 김현호 나성태 박상화 박 웅 신상왕 이준호 장성익 전금홍 진상영 최재영

46회(8명) 강진희 권성기 권태윤 김동희 서용택 이주용 정영석 정윤철 (정영석 2014년)

47회(7명) 고달우 김동휘 배준수 성상용 손교영 임형길 정민호

48회(2명) 김정훈 이동재

49회(7명) 고무원 김학균 신택영 안진국 장민건 조영철 최진영

50회(1명) 박현욱

51회(3명) 옥성진 이시원 정진우

52회(3명) 김상곤 김현진 임세훈

53회(1명) 이재홍

55회(1명) 김태련

65회(1명) 최성원

학교운영위원(3명) 오태순 조경숙 (윤봉선 2014년)

동문가족(3명) 김다리아 김매리아 표창술

전 재직은사 등(4명) 남석희 박금자 박희호 주차증

기수 & 이름불명 41명

구독료 관련 문의
본부동창회 사무실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모교발전기금 본부동창회 접수 분

2013년 6월 23일 ~ 8월 23일

박재욱 (26회) 500만원
손세영 (24회) 100만원
정해영 (28회) 70만원
허재창 (32회) 30만원
권해철 (31회) 12만원
곽동열 (38회) 10만원
윤성한 (41회) 10만원
26회 구형회 10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4명) 400만원

- 소계 1,232만원

- 총 누계 10억 1,578만원

모교발전기금 입금 계좌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예금주 : (재)용마장학회 안강태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3-0 예금주 : 경남중고발전위원회 이용흠

〈회비 납부 현황〉

- **회장 허범도 1500만원**
- **자문위원**
  신현호(14), 김길제(18), 김경재(19), 박용덕(20), 임경범(21), 정상인(21)
  이상 **100만원**
- **부회장**
  김원주(22), 박상호(26), 류명석(31), 박명진(33), 장인화(35)
  이상 **300만원**
  박찬명(22), 이영화(22), 안계환(22), 이병찬(23), 정상건(23), 곽두희(24), 노상우(24), 박창호(24), 정영석(24), 박종찬(25), 최동하(25), 최강호(28), 박성철(29), 양승오(29), 김현태(30), 윤성덕(30), 최우철(30), 이병태(31), 홍성수(31), 김법영(33), 안재익(36), 유호섭(37), 허부남(37), 우영환(40), 김형률(41), 이양걸(41)
  이상 **100만원**

총 38명 (합계 6200만원)

- **본부 분담금 낸 기수**
  11회, 14회, 16회, 17회, 18회, 19회, 22회, 24회, 25회, 29회, 30회, 31회, 34회, 36회, 37회, 39회, 40회, 41회
- **야구후원금 낸 기수**
  11회, 14회, 16회, 17회, 18회, 19회, 24회, 25회, 29회, 30회, 31회, 34회, 36회, 37회, 39회, 40회, 41회

투고, 제보 받습니다

〈편집자에게〉, 〈용마에쎄이〉, 〈용마醫窓〉 등의
원고와 각종 투고 및 제보,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동창회보가 소개했으면 하는 동문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편집실 이메일 주소

yongmanews@gmail.com

■ 이우환 동문의 작품세계

그가 찍은 線과 點은 깊은 통찰과 사유의 흔적

회화 – 큰 점 하나로 '여백의 미' 강조
설치미술 – 돌과 철판으로 '관계' 탐구

이우환은 1968년 깨진 유리 위에 돌을 얹어놓아 마치 돌 때문에 유리의 균열이 발생한 듯한 느낌을 주는 〈현상과 지각〉으로 당대 전위미술에 입문했다. 이는 실제와 시각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다룬 작업이기도 했지만, 행위를 개입시킴으로써 몸과 사물이 만나는 관계의 장(場)을 끌어낸 것으로 이후 그의 작업세계를 예고한 중요한 작품이다.

모노파(物派)미술이론 정립...입지 다져

이 때부터 이우환은 이미지나 형태의 제작과 '창조'에 매몰되어온 모더니즘 미술이나 장소와 상황이 배제된 미니멀리즘의 대안으로 모노파(物派)미술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모노파는 서구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흙 · 돌 · 나무 등 자연물의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배열을 통해 시공을 포함한 사물의 총체적인 경험을 지향한 조각 중심의 미술 이론으로 일본과 한국의 현대미술사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노파로 자신의 입지를 다진 이우환의 작업은 설치미술(조각)과 회화, 그리고 판화의 제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치미술은 비재현(非再現), 비제작(非制作)의 원칙 아래 철판과 돌을 '관계항'(Relatum)이라는 제목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회화는 반복되는 점과 선을 주 모티프로 하고 동양화의 서체적 용필과 여백을 기본으로 한 작업이다. 회화에서 그는 동양화론의 기본 개념과 구도를 원용했지만, 화선지 대신 캔버스를 바탕으로 하고 돌가루와 아교 등을 결합한 물감을 사용하여 전통 수묵화와의 연관을 피했다.

점 하나 찍는 작업은 "피 말리는 일" 실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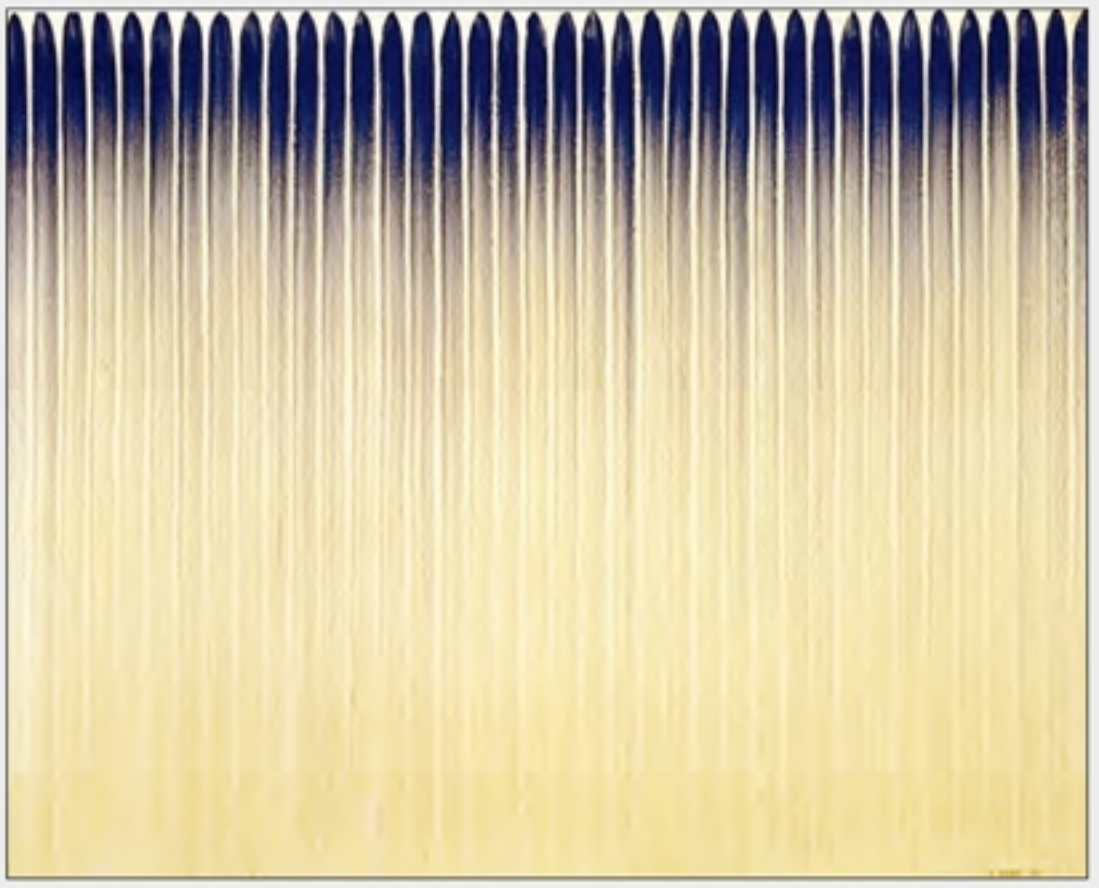
처음에 반복적인 점과 선으로 구성되던 그의 회화는 1970년대 말에는 절제와 규칙성이 허물어지고 큰 점 한 두 개를 그려 나머지를 여백으로 크게 두는 것으로 변화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 년간 '조응'(Correspondence)시리즈에선 두세 개, 복수로 등장했던 점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화'(Dialogue)시리즈에선 오로지 하나의 점만 드러난다.

이런 그의 점 그림을 보면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 점 하나를 찍는 작업을 "집중과 에너지를 요하는, 피를 말리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점 하나 찍으려고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헤맬 때가 많다고 말한다. 그림 하나에 40~50일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4, 5년 전에는 1년에 20~30점 그리던 것이 점점 줄어 요새는 10점 정도 밖에 못 그린다고 한다.

점 하나 선 하나가 철학적 고뇌의 산물

그가 찍은 점과 선 하나하나는 깊은 통찰과 사유의 흔적이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명징한 자기 논리가 있다. 회화건 설치 작품이건 그의 작품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철학이다. 고요한 느낌의 작품 속에는 수십 년간 고뇌한 작가의 치열함이 아우성친다.

점 그림과 돌과 철판의 조각에 대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에 그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전문가가 오래 생각하고 공부하고 체험한 것을 남이 어떻게 간단히 알 수가 있겠는가"라고 답한다. 이어 그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답을 제시하지 않고, 관객에게 열어놓은 것, 그것이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선으로부터〉 112.6x145cm. 캔버스에 아교 돌가루. 1980년.

〈점으로부터〉 2010년 9월 서울옥션 제3회 기획경매에서 대만컬렉터에게 7억1천만원에 낙찰된 작품.

〈조응〉 145x224cm. 1999년. 이 점 하나 그리는데 두 달 걸렸다고 한다. 17억원에 경매돼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철판과 돌〉 270x200cm(철판크기). 1993년.

〈조응〉 Free-standing oil on canvas, hinged diptych 227x364x30cm. 2003년

■ 이우환 동문과의 전화 인터뷰

"경남중 때 미술반이 아니라 생물반이었다"

이우환 동문(10회, 경남중)은 전화기 저편에서 자신의 '경남중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를 썼다. 여러 대목에서 "이거, 다 까묵어서..."라며 얼른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투박한 경상도사투리였다.

古都 가마쿠라에서 일본인 아내와 살아

현재 이 동문은 일본의 가마쿠라(鎌倉)라는 곳에서 일본인 아내와 살고 있다. 동경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해안에 자리 잡은 이 고도(古都)는 '동(東)일본의 교토'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수많은 절, 신사, 그 밖의 역사적인 기념물이 가득한 곳이다. 주로 예술가들과 부자들,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 동문은 경남 합안 군북면이 고향이다. 군북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부산의 경남중으로 '유학'을 왔다. 당시 경남중은 6년제였다. 그 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면서 고등학교는 '경남고'로, 중학교는 '부산서중'으로 교명이 바뀌게 된다. 그랬다가 이 동문이 졸업한 후 부산서중은 다시 '경남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입학 당시 경남중은 어땠는가?

"입학 후 몇 달 만에 6.25전쟁이 났다. 학교 교실에서 공부한 것이 2개월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군 병원이 학교를 차지하는 바람에 우리는 대신동의 빈 연탄공장 등지로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아야 했다. 환경이 열악했다."

당시 이 동문은 영주동에 있는 5촌 아저씨 집에서 하숙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 경남중 다닐 때 미술반에서 활동했나?

"아니다. 생물반이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미술반은 아니었다."

그는 "경남중 시절 생물반 담당선생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주 훌륭한 분으로 식물학계에서도 이름난 분이었다"고 말했다. 주상우 선생님을 말하는 듯 했다.

서울사대부고 택한 것은 남녀공학에 끌렸기 때문

"경남중 시절에 가깝게 지냈던 동기들은 누구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거 참, 이름을 다 까묵고...생각이 안 난다"며 뜸을 들이다가 "차동석이 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동기 차동석과는 차 동문이 작고하기 전까지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동기들처럼 경남고로 진학하는 대신 서울사대부고에 진학하게 된 연유를 묻자 그는 "정말 택도 아닌,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며 웃었다. 3학년 때 어느 날 용두산으로 식물채집 갔다가 건너편 영주동 쪽 산 중턱에 남녀공학인 서울사대부고를 봤다는 것. 서울사대부고는 당시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란 와 있었다.

"무엇보다 그 학교가 남녀공학이란 점이 끌렸어. 그리고 서울학교란 것도 마음에 들었고. 저 학교 들어가면 나중에 학교가 서울로 돌아가면 나도 서울 가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그는 단짝으로 지낸 동기 차동석(작고)과 의기투합해 서울사대부고에 함께 입학원서를 냈고 입학시험에서 둘 다 합격한다. 그러나 차동석 동기가 "아무래도 경남고로 가야겠다"며 서울사대부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혼자서 서울사대부고로 진학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기 차동석은 그 후 경남고를 졸업, 고려대로 진학해 학생회장까지 했고 이 동문은 서울대 미대로 진학했다. 이 동문은 서울대 미대 1학년 때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 가 니혼(日本)대에서 철학을 전공한다.

니혼大에서 철학전공...우연히 미술가로 변신

일본에서 철학을 공부했다가 다시 미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아이러니하다"며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니혼(日本)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철학과에 합격했는데 대학원에 입학수속을 밟기 전 잠시 한국에 왔다가 마침 5·16이 일어나 서울서 며칠 발이 묶였다는 것. 그 바람에 그는 대학원 입학수속을 제때 못해 결국 철학 공부의 꿈을 접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뭘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미술 하는 친구도 만나고, 아르바이트로 간단한 그림을 그려 팔기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미술가가 돼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어릴 때 고향에서 시, 서, 화를 배웠는데 그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나에게서 그림소질을 봤던지 '커서 그림 그리지 말거라. 그림은 사내가 할 일은 아니다'고 일렀다"며 "그래서 중·고교 시절 미술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 일본에 와서 어쩌다보니 화가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생활 57년째...일년의 절반은 미국 유럽에서

부산에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한 데 대해 그는 "내가 자라고 학교에 다녔던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부산과의 연고를 강조했다.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은 일본 나오시마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2010년 개관)'에 이어 부산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

– 대구에서도 이우환 이름이 붙는 미술관을 세운다는데...

"그것은 내 개인의 미술관이 아니다. 친구인 건축가 안도 다다키를 통해 대구시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국제적인 미술가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준 것 뿐이다. 그랬더니 '이우환과 친구들'이라고 미술관 이름을 갖다 붙이는 모양인데...대구는 나와는 아무 인연도, 연고도 없는 곳이다."

작품 앞에서 선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동문. 〈사진=중앙포토〉

이어 그는 "최근 광주에서도 특정인이 내 작품을 많이 수집해 미술관을 세운다며 연락을 해오는데, 아직 내가 오케이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것 역시도 나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동문은 "일본에서 산지도 올해로 57년째"라며 "일본에 살면서도 년중 절반 이상은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서 지낸다. 떠돌이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어디 가서 산다는 게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언제 부산에 들리면 모교(경남중)에 한번 같이 찾아가보자고 했더니 "10년 전 쯤인가, 경남중에 한번 가봤더니 옛날의 그 교사(校舍)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몰라보게 많이 달라졌더라. 실망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쓸쓸함이 묻어났다.

〈김차웅(19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우환, 그는 누구?

세계적 거장...한국 생존작가 작품 중 최고가 기록
소문난 미식가에 패션감각... '세계인'이며 멋쟁이

이우환 동문은 1956년 서울대 미대 동양화과 1학년을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61년 니혼(日本)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대 말에 대두된 일본 모노파(物派) 미술의 이론가이자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데뷔 이후 회화·조각·설치·판화·미술평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작품을 남겼다.

1980년대 말부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개최된 전시들을 통해 국제 화단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 서구와 일본에서의 모노파 재조명 열풍을 타고 작가적 명성이 더욱 공고해졌다. 2011년 6월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동양인으로서는 3번째로 개인전 〈이우환 : 무한의 제시 Lee Ufan : Marking Infinity〉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인했다.

이 동문은 백남준과 '동급'으로 거론할 수 있는 유일한 작가다. 작품가에서는 이 동문이 오히려 앞선다. 지난해 11월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1997년 작품인 '점으로부터' 3점 세트가 해외 경매에서 196만1181달러(24억여원)에 낙찰돼 한국 생존작가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가 캔버스에 찍은 점 하나의 값이 7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그는 미술시장 뉴스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국내 미술시장 호황기였던 2007년 전후로, 미술작품 가격이 세간의 핫뉴스였을 때 그는 한국기자들과 거리를 두었다. "무턱대고 작품 값부터 이야기하려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현대미술의 싸움터에서 명징한 자기 논리의 성(城)을 쌓아가는 화가이자 조각가이며, 예술이론가이자 문필가다. 〈멈춰 서서〉 같은 에세이집은 전문 작가의 것이라고 해도 될 만큼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편 '뱀', '아크로폴리스와 돌멩이' 같은 작품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렸다.

이 동문은 소문난 미식가다. 해외에 가면 유명 스타 셰프의 음식, 최고급 와인 등을 꼭 챙기려고 노력한다. 그는 와인 소믈리에에게 특강을 할 수 있을 만큼 와인이며 음식에 일가견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옷차림도 연분홍 셔츠, 회색재킷에 면바지 등 편안하고 기능적이며 작가의 품격이 묻어나게 은근한 패션감각을 고수해왔다.

그는 자신의 이같은 고급취향에 대해 "럭셔리하고 멋있는 삶을 살려면 습관적으로 '하이 퀄리티'를 추구해야 한다. 적게 소비하고 조금만 갖되, 갖고 있는 것들은 최고로 좋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한 마디로 세계인이며 멋쟁이다.

■ 여기는 미얀마...

미얀마에 불고 있는 거센 한류바람

"한국 연속극이 미얀마 미풍양속 해친다" 지적도

내가 1998년 처음 미얀마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곳 TV에서는 중국과 일본 드라마 일색이었다. 한국 드라마는 전혀 볼 수 없었다. '꼬레'(Korea)라는 말조차 미얀마사람들에겐 생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미얀마에서 한류가 시작된 것은 2001년 '가을동화'가 미얀마 국영MWD TV전파를 타면서 부터였다. 당시 '가을 동화'가 방영되던 시간엔 거리에 사람도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TV을 가진 집이 흔치 않은 터라 TV가 있는 집과 TV가 설치된 길가의 찻집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지난날 한국에서 '여로'가 방영되던 때의 모습이 미얀마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자 또 다른 국영 MR TV가 방영 중이던 중국물을 서둘러 접고 '풀 하우스', '대장금' 등을 잇달아 방영, 한류 붐을 일으켰다.

현재 미얀마 TV에서는 연속극에서 코메디 프로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국물들이 석권 하다시피 하고 있다. 미얀마사람들이 한국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치는 것은 거의 일상적인 일이다. 그 뿐인가. FM 라디오에서는 시시각각으로 해설과 더불어 K팝노래가 이어지고, 사회자가 프로그램 시작과 끝을 제법 유창한 우리말로 인사를 하기도 한다. 반시간짜리 한국어 배우기 프로그램까지 방송하고 있다. 거기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강조하는 상품광고가 신문 잡지 라디오 TV에 넘쳐난다.

양곤 시내의 화장품광고판. 한국의 댄스그룹 모습과 함께 "한국에서 막 도착했다"라는 광고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다움 카페 천진암〉

그 뿐이 아니다. 미얀마 사람들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빠'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국말을 적어도 한 두마디 못하는 젊은이들이 없다. 길 가다가도 한국사람이다 싶으면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넬 정도다. 언어가 비슷해서 일까, 아니면 국민적 정서가 비슷해서 일까, 하여튼 지금 미얀마에서는 코리아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그 하나는 고부간의 갈등을 지나치다시피 다룬 한국연속극들이 며느리를 내 딸로, 사위를 내 아들로 생각하는 여기 풍속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연속극들이 그들의 미풍양속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말이 일부 식자층과 온라인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이 모니터링되어 우리 정부에 제대로 보고나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도 가능할까 말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한류가 더욱 더 깊숙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박 태 환 (30회, 미얀마 양곤 거주)

■ 기고 / 역행(逆行)의 묘미

군중심리에 이끌려 몰려다녀서야...

이 헌 영 (14회, 서울 독산동 세영정형외과 원장)

운동장 역행하는 것 보고 속으로 "미친 놈"

나는 아침산책을 보라매공원을 코스 따라서 걷고 나서 그곳의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운동장 트랙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계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무리를 지어 돈다. 나도 자연스레 그 대열에 합류해서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그런데 가끔 반대방향으로 트랙을 도는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 그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게 된다. 속으로 "미친놈!"하면서.

그랬던 내가 하루는 친구와 만나기 위하여 평소와는 반대인 시계방향으로 트랙을 돌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됐다. 나에게 얼굴을 보이며 마주다가오는 가지각양의 인간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들 중에는 역행하는 나를 보고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思秋期의 반항심리인지 '역행의 충동' 느껴

나이가 들면서 규격화된 삶에 차차 염증을 느껴서인지는 몰라도 매사에 역행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사춘기(思春期)에 반항을 해보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아온 내가 사추기(思秋期)가 되면서 뒤늦게 반항심리가 일깨워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체육관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에 자주 매달리는 것도 나에게 새로 생긴 버릇이다. 거꾸로 매달려 다른 사람들이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이러한 괴벽은 일찍이 의사회 모임에서도 가끔 나타나 내 스스로를 곤란케 만들곤 했다. 상대 이익단체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단합에 역행되는 발언을 곧잘 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역행이야말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논리에 스스로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역행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친구들은 역행하는 자를 왕따 시킨다. 그러나 가끔은 역행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 군중심리에 이끌려 몰려다니기만 하면 새로운 것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가끔 집단행동에 역행하며 자연의 편에 서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순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전염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소음이 있고 시비가 있고 경쟁이 있다. 역행해 보라. 깨끗하고, 조용하고, 혼자 일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인간들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고 그것이 진짜역행은 아닐 것이다. 진짜 역행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을 막아 땜을 건설할 때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거나, 정치가의 독선이 백성의 삶을 도외시하거나, 의료의 개혁이 의료의 주체인 병과 환자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는 역행이다. 그런 역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는 역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인간들의 집단행동에 가끔 역행하면서 자연의 편에 서기를 좋아할 뿐이다. 인간들에게서는 뺏을 것도 없고 얻을 에너지도 많지 않다. 그러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기(氣)와 에너지는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 자연에서, 우주에서 받은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갈 동안 방출하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자연에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역행해도 자연에 순행한다면 그 역행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 45회 동창회장기 기별 야구대회

입장식 : 10월 6일 (일) 오전 11시 경남고 운동장 (우천시 : 체육관)
폐회식 : 10월 26일 (토) 오후 5시 경남고 운동장

1. 출전팀 구성
① 연합팀 제 1회 ~ 18회 (A팀 – 홀수기수, B팀 – 짝수기수)
② 장년부 제 19회 ~ 36회
③ 청년부 제 37회 ~ 50회

2. 입장식 후 용마가족 이벤트 행사

3. 참가동문, 가족 전원 식사 및 기념품 제공

■ 뉴욕통신 / 브룩클린 하프 마라톤 참가기

두 아들과 함께 뛰다가 걷다가 하며 완주

김 병 권
(15회, 미국 뉴저지주 놀우드 거주)

해마다 봄이 오면 이곳 뉴욕 인근의 로드 러너들(Road runners)이 몹씨 고대하는 것이 있다. 바로 브룩클린 하프 마라톤이다. 줄여서 '브룩클린 하프'로 부르는 이 마라톤대회는 항상 3월 초에 개최되다가 근년에 들어서는 5월로 미루어졌고, 코스도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식물원 근처에서 시작하여 프로스펙트(Prospect)공원을 한바퀴 돌고 코니 아일랜드(Coney Island)로 직행하는 코스로 바뀌었다.

인기 많은 부룩클린 하프...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

'브룩클린 하프'는 '뉴욕 하프'(맨해튼 7번가에서 42가로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로 달리는 마라톤)와 함께 로드 러너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회다. 외국인들도 많이 참가한다. 참가비는 1인당 55달러에서 79달러(대회 며칠 전에 참가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참가비가 달라진다)로 꽤 비싼 편이다.

대회가 있는 5월 18일 토요일. 새벽 4시30분쯤 일어나 아내를 깨웠고 커피를 끓여서 들고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브룩클린으로 향했다. 둘째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니 큰 아들이 벌써 거기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큰 애는 회사 일로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가 나흘간 일을 보고는 어제 밤 10시에 도착하여 몇 시간 눈 붙이고 나온 것이다.

아내는 우리 셋을 출발점에 떨구어 주고 나중에 골인 지점에서 우리를 태워주기로 약속했다. 출발지점에 가니 아직 40여분이나 남은 시간인데도 근방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수백 개의 간이변소가 마치 사열하는 군인들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내가 속한 번호 그룹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프라노 여가수가 미국 국가를 불렀고 이어 출발 신호 소리가 들린다. 옛날에는 출발신호로 총을 쏘았으나 1980년 비틀스 중 한명인 존 레논이 맨해튼의 자기 아파트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 이후부터 팔로 된 경적(Horn)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큰 마라톤대회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소리를 내는 대포를 허공에 쏜다.

2만5천여명 참가...5마일 지점부터 숨 가빠

출발신호가 울리고 선두그룹은 출발하였으나 중간에 있던 우리는 13분이 지난 후에야 스타팅 매트(Starting Matt)를 밟았다. 이날 하프 마라톤에는 무려 2만5천여명이 참가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출발시킬 수가 없기에 시간차를 두고 출발시키는 것이다. 늦게 출발한 시간만큼 나중에 완주시간에서 빼주기 때문에 늦게 출발한다고 해도 손해는 없다. 하여튼 내 뒤에도 내 앞에 출발한 선수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참가자들이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두 아들과 함께 출발, 프로스펙트공원의 아스팔트를 질주했는데 5마일 지점인 언덕에서 나는 숨이 가빠져서 1분 정도 걷다가 다시 뛰어야 했다. 8마일 이후부터는 걷는 회수가 잦아졌다.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쉬거나 혹은 너무 숨이 차 여나믄 번이나 30초에서 1분 정도씩 쉬어야 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고부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장거리 마라톤선수에게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란 것이 있다. 심한 고통이 어느 한계에 달하면 두뇌에서 엔돌핀이 나와 고통을 줄여준다고 한다. 나는 이런 현상을 20여년 전 거의 같은 시기에 꼭 세 번 경험한 적이 있다. 이 브룩클린 하프 마라톤(1시간18분 기록)과 뉴져지 워터프론트 마라톤(2시간 56분 정도로 99위), 그리고 보스톤 마라톤(2시간 53분 기록)에서 였다. 첫 경험은 1988년인가 89년인가 이 브룩크린 하프 마라톤에 참가해 달리던 중에 했다. 10마일 지점에 오니 출발 후 58분가량 지났을 때였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냥 땅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기분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으며 어디선가 바다바람이 쏴 밀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어서 의식의 혼돈 상태에서 끝마쳤다.

완주를 끝내고 두 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른쪽이 필자.

한창 때의 기록은 '개인의 전설'로만 남아

그리고 내가 마라톤을 시작한지 4년이 되던 해 보스톤 마라톤에서 또 러너스 하이를 느꼈다. 그 때도 24마일 지점 가까이에서 의식 상태가 몽롱해지면서 현기증을 느꼈으나 무사히 끝냈다. 그리고 뉴져지의 워터프론트 마라톤에서는 거의 마지막 순간인 26마일 지점에서 의식이 흐려지면서 몸의 균형이 어떤 보이지 않은 신비한 힘이 작용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

생각하면 그때는 젊어 펄펄 날았을 때다. 그 당시 나는 '마일 당 6분'이라는 스피드로 뛰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최고 기록은 쌓인 눈에 발목이 푹푹 빠지는 맨해튼 센트랄 파크에서 있었던 '7마일 경기'에서 냈던 41분이란 기록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젠 다 지나간 이야기다. 나이 70이 넘은 나에게 '개인적인 전설'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800m to go' 라는 싸인이 보이는 거의 끝 지점에서 또다시 숨쉬기가 거북해 걷고 있으니 어떤 여자 선수가 지나치면서 나의 등을 가볍게 치며 "Hey, come on, half mile to go" 라고 외쳤다. 나는 손을 들어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뛰기 시작하여 드디어 끝을 냈다. 마치 큰 숙제라도 푼 것 같은 안도감과 함께 행복한 피로감을 맛봤다.

1시간52분 기록으로 골인...연령그룹에서 5등

나는 약속 지점에서 작은 아들과 아내를 만났으나 큰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테러 등에 대비해 셀 타워(Cell Tower)에서 무선중계 기능을 차단했을 것이다. 20여분 후에 큰 아들이 나타나 "Ran out of gas.(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 라고 한다. 해외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정상 페이스를 잃은 것 같았다.

우리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작은 며느리가 아파트에서 컴퓨터로 주최 측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리들의 성적을 조회해서 우리들에게 전화로 알려 준다. 그 시간까지도 선수들은 여전히 종점으로 골인하고 있었다. 작은 며느리가 알려준 이날 나의 기록은 '1시간52분'으로 전체 2만5천여명 중에서 7,401등(연령 그룹에서는 3백58명 중 5등)이었다. 작은 아들은 1시간 35분, 큰 아들은 1시간 59분이었다.

祝 경남중고 중부산 지역 동창회 창립

창립총회 : 2013년 9월 25일 (수) 오후 6시 30분 자갈치 오아제 뷔페 (051-248-7777)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중부산지역 창립준비위원회

■ 부산 서 · 중 · 동 · 영도구 통합
중부산 지역 동창회 구별 대표 및 부대표
서 구 : 이영학(26회), 윤성한(41회)
중 구 : 이규생(26회), 정상필(47회)
동 구 : 윤홍석(26회), 최동식(31회)
영도구 : 이병걸(33회), 홍성호(41회)
※ 사무국장 최신일(40회), 사무차장 김형준(44회)

자연과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

· 신의, 창의, 성실을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 아미산전망대 건립공사 시공사 입니다.
· 한국 SGI 기념강당 신축공사 공동시공사 입니다.
· APEC정상회의장 공동 시공사입니다.
· 2006년 대한민국 건설기업 대상 수상.
· 2011년 부산 건축대상 수상.
·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이전 신축공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공사, 대연혁신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남부민 국민임대주택 건립공사,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공사,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조성공사, 영남재활병원 건립공사, 부산도시철도(1호선 다대구간) 5공구 6공구, 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2공구) 등 단독 또는 공동 시공하고 있습니다.
· 해운대 베르나움 오피스텔, 해운대 센텀뷰 라움 오피스텔, 화명동 엘가 오피스텔, 논산 대교동 코아루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입니다.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토목건축공사업02-0045 / 전기공사업01049호 / 조경공사업
회장 박 상 호(26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1(로제스티 B/D 10F)
TEL : (051)504-6698(代) FAX : (051)504-6809
www.stycons.co.kr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대연혁신지구 공동주택 1공구

화명동 주상복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해운대 누리마루

특별기고 – '청마산우회' 이야기

야구장에선 불구대천의 원수 같았던 용마인들이...

김 종 렬
(부산고 21회, 전 부산일보 사장)

지난 90년대 초 당시 부산일보 경제부장이던 필자는 경남고출신인 신길송씨(당시 롯데자이언츠 이사, 경고 14회)와 신 이사의 동기인 류총일 부산대 의대교수, 김창수 부산대 무역학과 교수(경고 28회) 그리고 부산고 출신인 하상조 동의대 경제과교수, 정서환 부산일보 사회부차장등과 틈만 나면 배낭을 꾸려 지리산 신어산 금정산 천성산 등을 즐겨 탔다. 신길송 선배는 필자가 경제부 기자였을 때 수정동 옛 동일고무 벨트 자리에 있던 칠성음료 부산지사에 취재를 갔다가 처음 만났다. 신 선배는 당시 칠성음료 부산지사의 책임자였고 부산일보에 그의 동기인 박정인 부장이 있어 우리 셋이 자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며 형제처럼 지냈다.

경고와 부고 출신들로 '청마산우회' 창립

야구와 등산을 좋아하고 경고 동창회 오비팀 포수로 활약하는 등 만능 스포츠맨인 신 선배는 주특기를 인정받았는지 얼마 후 롯데칠성에서 롯데자이언츠로 옮겼다. 그즈음 신 선배와 필자는 '무운동 무음주'의 원칙을 세우고 산을 탔다. '무운동 무음주'란 '술을 마시려면 반드시 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산과 술을 즐기는 필자의 후배들이 가세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덕수 씨(경고 21회, 제원무역 사장)는 오거돈 당시 동구청장, 이강남 판사, 신남석 상무, 이세형 변호사, 강화중 한국은행 부산부지점장 등 경남고 동기들과 산행모임을 하고 있었다. 서 사장과는 대학원 동기로 가까운 사이인 필자가 94년 4월 이들의 향로봉 산행에 초청되어 갔다. 그 자리서 "두 산행 모임을 합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해 6월 두 산행모임 핵심인사 10여명이 대원사 계곡에서 통합산행모임인 '청마산우회'를 탄생시켰다. '청마'란 이름은 부산고와 경남고의 별칭인 '청조'와 '용마'에서 따왔다. 산우회 명칭을 용마와 청조에서 각 한자씩을 따서 짓기로 하고 '용청' '용조' '마조' '마청' 등의 명칭을 조합해 봤으나 어감 상 영 아니었다. 그래서 필자가 '청마'를 제안했더니 경남고인사들로부터 "왜 부고가 경고 앞에 오나"라는 장난기 어린 항의가 있었다. 논란 끝에 "부고가 대통령을 배출한 경고를 수식하는 명칭이 아니냐"는 궤변으로 마침내 '청마산우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고 부고 출신의 쟁쟁한 인사 1백여명이 회원

그 후 양교출신 인사들이 다수 청마산우회에 들어왔다. 경남고출신으로 송태형 정신과의사, 최희춘 사장, 김길서 산부인과의사, 박현두 동남은행지점장, 이재호 변호사(이상 21회)와 정영석 현 동구청장, 박창호 현 동서아이에스감사(이상 24회), 그리고 고규석 전 제일제당 부산지사장, 김형국 부산대 산학협력단장, 박장현 대성조경대표, 백민호 고교교사(이상 26회) 등이 합류, 청마산우회의 주류를 이루었다.

부고출신으로는 신길송 선배의 어릴 적 동네친구인 노호길 영춘당한의원원장을 비롯, 정일수 변호사, 정의화 당시 봉생병원장, 김상갑 문화병원 부원장, 최차구 쌍용건설지사장, 차인준 인제대부총장, 김종군 약사, 이수호 해양대교수 등이 초창기 멤버로 참가했다. 허삼수 김진재 권경석 안경률 의원, 이종균 재해병원장, 안상영 부산시장, 곽만섭 산림청장, 김영오 서구청장, 김종욱 교수, 김무남 신라대총장, 송은복 김해시장, 이만형 부산공대교수, 이문섭 부산일보 부장 등은 명예회원으로 송년산행 등에 참여했다.

경고출신 명예회원으로는 이회문 전 경남고교장(6회), 장혁표 전부산대총장(8회), 문정수 전부산시장 홍기환 전 부산의대 학장(12회), 허홍욱 부산대교수(19회) 등으로 가끔 산행에 참가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양교 출신은 아니지만 전상수 당시 경남여고 총동창회장이 홍일점 명예회원으로 산행에 참여했다.

1994년 여름 금정산 야간 산행 중에 신길송 회장(왼쪽)과 함께.

매월 산행...2006년 5월 200회 산행기록

청마산우회는 "특정고 출신들만의 모임"으로 알려져 타고교 출신들로부터 눈총을 받다가 몇 년 뒤에 문호를 완전 개방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仁者樂山 智者樂水)라고, 산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진 이들이 앞 다퉈 가입해 청마산우회의 회원이 1백여명으로 늘어났다. 부산경남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던 회원들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하면서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지난 2006년 5월에는 200회의 정기산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은 창립 다음해인 1995년 9월에 가졌던 지리산 등정이다. 순두류 경남자연학습원에서 1박하고 올랐다. 환갑을 지난 노령에도 이회문 당시 경남여고 교장선생님부부, 장혁표 부산대 총장 등이 지리상 정상인 천왕봉에 거뜬히 올라 노익장을 과시했다.

그해 4월 밀양 화악산 산행도 지리산산행 못지않았다. 산행 후 화악산 밀 부북면 퇴로리 여주이씨 한옥마을에 있는 이회문 교장선생님의 고향 고가(古家)에 들려 선생님 내외분이 손수 끓여내 30여명의 회원들에게 대접해준 곰탕맛이 생각난다. 이 교장선생님의 18번인 '끈끈한 정 때문에'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때 우리들에게 주신 따뜻한 정을 잊을 수 없다. 청마산우회는 2000년부터는 매년 하절기에 일본 중국 등의 해외산행을 실시하고 백두산 금강산도 다녀오는 등 참 열심히도 산행을 다녔다.

역대 집행부는 초대회장 신길송(94년), 2대회장 오거돈(99년), 3대회장 김종렬(2000년~2006년) 등이다. 필자가 부산일보 사장을 맡기 직전까지 만 6년 간 장기집권을 한 셈이다.

총무는 김가야 동의대교수(부고28회) 김 교수의 동기인 이원직 사장, 김경식 테크노파크 본부장(경고32회)이었고 초대 등반대장은 용마산악회 등반대장으로 유명한 신남석 씨가 맡았고 하상조 교수(부고 24회)와 의사인 장경재 박사(경고 26회)가 그 뒤를 이었다 .

초기엔 아담한 회보도 격월간으로 발행했는데 부산시보 등에서 활동한 김형석씨(경고 16회) 등이 편집을 맡았다.

"2시간 산행하고 8시간 술 마신다"는 악소문에...

2004년 6월 14일 밤 부산 동래 허심청에서 청마산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다. 약 1백여명의 전, 현 회원이 모였다. 압권은 초대 회장이자 산파역인 신길송 선배가 멀리 미국에서 달려온 것이다. 그는 도미 후 전립선암에 시달렸으나 미국에서 태권도사범으로 유명한 이중구씨에게서 태권도를 사사해 태권도훈련을 통해 완쾌됐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신 선배는 태권도 도복 차림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나와 태권도 시범을 펼친 게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청마산우회는 창립10주년 후부터 아쉽게도 '28산악회'란 오명(汚名)을 얻고 점차 침체기에 들어선다. "2시간 산 타고 8시간 술 마시는 주당들의 산악회"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다. '술보다는 산'이었던 경고 21회의 진짜 산사나이들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청마산우회 회원 중에서 일찍이 유명을 달리한 경고 부고 출신회원으로는 박정인 부산일보 이사, 김진재 국회의원, 황수길 세무서장, 정일수 변호사, 하상조 교수 등이 있다. 하나같이 애주가(愛酒家)들이어서 문제의 '28 산악회'가 이들의 명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 싶어 죄스럽기만 하다.

분에 넘치게 용마인들의 사랑 받아...이젠 갚아야

얼마 전 필자처럼 백수가 된 오거돈 전 회장이 어떤 자리에서 필자에게 "청마산우회를 함께 재건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의했다. 최근 무릎이 고장 나는 등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필자는 즉답을 피했다.

유치환 시인의 호와 같은 이름의 청마산우회로 필자가 얻은 게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고교시절 구덕야구장에선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겨지던 용마인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이다.

청마의 유명한 시 <행복>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느니라'로 시작된다. 돌아보면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용마인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이제는 사랑을 하는 것으로 더 행복해져야겠다. 백수들의 참여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청마산우회를 되살려 '용마'와 '청조'가 다시 어울려 우의를 다지는 모임으로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거돈 장관, 우리 둘 다 백수가 됐으니 내달엔 함께 배낭을 둘러매고 청마산우회에 다시 나가볼까요?"

동기회 소식

◇ 5회 = 신임회장 상기중, 총무 임외택 선출

지난 7월 24일 부산 사직 홈플러스의 '아일랜드'에서 임시 모임을 갖고 신임회장에 상기중, 총무에 임외택 동기를 선출하고 동기회의 재 약진을 다짐.

◇ 18회 = 내년 4월 27일에 졸업50주년 기념행사

지난 7월 29일 서면 소재 '서면설렁탕' 음식점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가을 야유회를 10월 31일에, 낚시대회를 11월 3일에 각각 갖기로 잠정 결정.

또 졸업 50주년 행사는 내년 4월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부동반으로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세부계획을 세웠다. 집행부의 계획에 따르면 4월 27일 오후 3시 노포동에서 버스 2대로 경주로 출발, 보문단지에 있는 힐튼호텔에 도착한 뒤 오후 6시부터 기념행사 및 저녁식사, 여흥시간 등을 가질 계획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오전 7시 아침식사(호텔식)에 이어 불국사 및 천마총을 견학하고 낮 12시 30분 언양 봉계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30분 출발, 노포동에 도착해 해산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김길제 동기회장은 호텔객실 예약과 명찰작성 등을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참석여부를 동기회에 꼭 알려주길 요망하고 있다.

◇ 25회 =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이수영 선출

지난 6월 25일 서면 '터존뷔페'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35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신임회장에 이수영, 수석부회장에 이명현, 감사 김상수, 총무 옥동훈, 여성조를 각각 선출했다.

◇ 27회 = 정기총회에서 이종찬 심임회장 선출

지난 6월 26일 서면 '터존뷔페'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33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이종찬 동기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총무 백인호, 감사 이정재는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 29회 = 동기회장배 바둑대회 개최

지난 7월 21일 서면 소재 푸른기원에서 동기회장배 바둑대회(회장 양승오)를 가졌다. 2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급수에 따라 갑, 을 조로 나뉘어 동기들끼리 수담(手談)을 나누었다.

◇ 46회 = 모교 야구부에 야구용품 지원

하성룡 동기(하이비젼 안경점 운영)를 중심으로 동기회가 힘을 모아 모교 야구부에 6백만원 상당의 스포츠 고급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매년 입학하는 야구부 전원에게 고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룡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김대기 동문(이니스프리 운영)이 1백만원 상당의 선크림을 찬조했다.

지역, 동호회 소식

◇ 경총회 = 전현직 사무국장들 단합대회 가져

경남중고동창회 총무단 협의회인 경총회(회장 김경진, 27회) 단합대회가 지난 7월 23일 민락동 '수정횟집'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동기회 전 · 현직 사무국장들은 모처럼 마련된 이 자리에서 우의를 다졌다.

◇ 경불회 = 부용동 미륵정사에서 정기 가족법회

경남중고 동문불자들의 친목모임인 경불회(회장 정영천, 21회)는 지난 7월 20일 제2차 정기 가족법회를 부산 서구 부용동 소재 미륵정사(주지 월봉스님, 6회)에서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법회가 끝난 뒤 허정스님(12회)이 출판한 '가려 엮은 아함경 (재가자편)'을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 주었다.

◇ 우리들의 만남 = 7월 정기 모임 가져

지난 7월 26일 남천동 '무궁화'에서 7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박창호 회장(24회) 등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서병수 동문이 게스트로 참석했다. 또 신입 회원으로 옥성수 동문(30회,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과 김경식 동문(33회,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 참석했다. 다음 정기모임은 9월 11일에 이춘만 동문(19회, CM회장)을 초청해 열릴 예정이다.

◇ 해운대 지역 = 60여명 참석 정기 모임

지난 7월 25일 해운대 신도시 소재 '소금창고'에서 김두섭 회장 (34회) 을 비롯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 미국중서부동창회 = 이용흠, 김기섭 동문 환영회

지난 7월 8일 저녁(현지시간) 시카고 시내 일식당 '이자카야 유메'에서 이용흠 동문(19회, 본부동창회 고문)과 김기섭 동문(30회, 부산대총장)의 시카고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을 가졌다.

이날 강대칠 회장(20회)은 환영사에서 "이용흠 회장은 본부동창회장 재임 시 동창회보를 혁신했고 발전기금모금운동을 이끄는 등 동창회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이날 모임에는 지난 6월 22일과 23일 캔자스주에서 열린 전미주한인체전에서 시카고팀이 우승을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정강민 동문(27회, 시카고한인회 총무이사) 등 현지거주 동문들이 참석, 시종 즐거운 분위기에서 만찬을 즐겼다.

한편 부산대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흠 동문은 부산대총장인 김기섭 동문과 함께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LA, 시카고, 뉴욕을 순방하며 미주지역 부산대동창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

어디서 무엇을...

〈5회〉

△**상기중** = 6월 23일 차남결혼, 서울시 삼육대학교

〈13회〉

△**문 장** = 7월 3일 모친상, 영락공원 장례식장

〈14회〉

△**故 김 용**= 7월 7일 아들 결혼, 강남 수아비스예식장 △**최남천** = 6월 29일 딸 결혼, 버지니아 센터빌

〈15회〉

△**정창환** = 수필집 '오후의 한담' 출판. 010-3318-1103

〈16회〉

△**공명규** = 9월 6일 딸 결혼, 프라자호텔

〈18회〉

△**김정태** = 氣치료센타 '힐링공간' 오픈. 해운대 중동역 2번 출구 공영주차장 건너편. 010-8915-5278 △**민병근** = 6월 27일 모친상, 울산 영락원 △**이대운** = 7월 13일 장남 결혼, 서울 동안교회 △**임영섭** = '수정노래 연습장' 개업. 다대포 라브랜드 정문 앞. 051-364-6300 △**홍종수** = 8월 2일 모친상, 서면성당

〈19회〉

△**배무삼** = (사)부산민속연보존회 이사장 취임

〈20회〉

△**이갑현** = 7월 7일 아들 결혼, 서울대 연구공원 △**이경하** = 9월 7일 장남 결혼, 현대컨벤션웨딩홀 △**이기만** = 7월 27일 아들 결혼, 리베라호텔

〈22회〉

△**김형경** = 6월 30일 딸 결혼, 서울 리츠칼튼호텔

〈23회〉

△**강영걸** = 9월 8일 아들 결혼, 빌라드베일리 △**강창보** = 8월 25일 장남 결혼, 양재동 엘타워 △**구춘옥** = 8월 24일 장남 결혼, 논현동 파티오나인 △**김영해** = 9월 1일 딸 결혼, JW메리어트호텔 △**김정한** = 8월 24일 빙부상, 부산 좋은강안병원 △**김재봉** = 9월 8일 딸 결혼,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박준식** = 7월 20일 모친상, 현대아산병원 △**서상병** = (주)에스앤비마리타임 개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9층. 02-3789-9891 △**이국제** = 8월 1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이문희** = 8월 13일 빙부상, 해운대백병원 △**이영창** = 8월 31일 딸 결혼, 명동컨벤션 2층 △**장병규** = 9월 28일 아들 결혼, 천주교 세종로성당 △**전영찬** = 6월 29일 장남 결혼, 하버컨벤션웨딩홀 △**전재홍** = '유나켐상사' 사무실이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0-12번지 301호. 02-512-2916 △**최성옥** = 7월 20일 차남 결혼, 미국 필라델피아 트리니티교회

〈24회〉

△**박태진** = 8월 2일 모친상 △신장우 = 7월 17일 빙부상 △**이창무** = 6월 3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전우열** = 6월 29일 장남 결혼, 아리랑호텔 △**최창림** = 6월 16일 장녀 결혼, 조선비치호텔

〈25회〉

△**김덕우** = 9월 7일 아들 결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김상수** = 8월 25일 딸 결혼, 부경대 비스타스 △**김 석** = 10월 5일 장남 결혼, 서강대 곤자가컨벤션 △**박영안** = 9월 7일 딸 결혼, 대검찰청 예식장 △**배종오** = 9월 8일 아들 결혼, 파티오나인 △**윤성부** = 8월 31일 장남 결혼, THE-K 서울 호텔 △**진익철** = 서초구청장, 8월 23일 빙모상. 안동병원 장례식장 △**한석정** = 동아대 부총장, 6월 27일 모친상,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6회〉

△**김섭권** = 7월 12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김철원** = 7월 7일 장남 결혼, 새천년부페컨벤션웨딩센터 △**배기호** = 9월 1일 장남 결혼, 양재동 엘타워 △**이규생** = 7월 20일 장남 결혼, 부산 대한통운웨딩홀 △**이동희** = 6월 29일 장남 결혼, 광안리 씨사이드웨딩홀 △**이성근** = 7월 3일 부친상, 동수원남양병원 △**이중헌** = 7월 6일 장녀 결혼, W시티웨딩 △**이증훈** = 8월 25일 장녀 결혼, 노보텔앰배서더강남 △**장종언** = 8월 5일 빙부상, 부산 대동병원 △**조해금** = 6월 21일 모친상, 김해 조은금강병원 △**최병무** = 6월 16일 장녀 결혼, 남천동 남천성당

〈27회〉

△**박득송** = 7월 28일 장녀 결혼,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영빈** = 경남은행장, 9월 8일 딸 결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임용한** = 6월 25일 빙부상, 신촌 세브란스병원 △**허 한** = 7월 23일 모친상, 부산대병원

〈28회〉

△**공도성** = 9월 8일 장녀 결혼, 잠실 롯데호텔 △**김이청** = 6월 29일 빙모상, 부산의료원 △**김인호** = 8월 23일 딸 결혼, 서울시청 앞 프라자호텔 △**김형진** = 8월 13일 부친상, 해운대백병원 △**박영제** = 9월 7일 딸 결혼, 서초동 성당 △**박창수** = 7월 1일 부친상, 주례 삼선병원 △**신효철** = 7월 22일 모친상, 양산 현대조은병원 △**옥준원** = 7월 31일 빙부상, 부산 침례병원 △**이원용** = 8월 17일 아들 결혼, 서울 하얏트호텔 △**이인수** = 9월 7일 장남 결혼, 서초동 대검찰청예식장 △**이정기** = 7월7일 장녀 결혼, 여의도 샤이닝스톤 △**최봉락** = 7월 22일 빙부상, 수원 아주대병원

〈29회〉

△**서봉교** = 7월 8일 부친상, 서울 아산병원 △**신병철** = 7월 21일 모친상, 양산 조은현대병원 △**이수호** = 8월 24일 장녀 결

〈13면에 계속〉

“자전거 타고 신나게 서울~부산을 달렸지요”

30회 동기 8명, 무더위 속 6박7일간 6백60km 달려
30여 년 전 대학 때 했던 ‘추억의 자전거여행’ 재현
을숙도 도착 후 동기들이 환영회...“인생살이에 자신감”

30회 동기 8명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27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7일 동안 자전거로 서울~ 부산을 주파했다.

이들이 자전거로 달린 총 거리는 6백60km. 하루 평균 주파거리는 1백km씩, 페달을 밟은 시간은 7시간 정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다고는 하나 나이(올해 57살)를 감안하면 대단한 모험이며 열정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달려보자는 제안은 지난 4월 박모철 동문(무역회사 대표)이 했다. 박 동문은 30여 년 전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 동기인 김재중, 김창근, 조병훈과 함께 서울~부산을 2박3일만에 자전거로 주파했던 적이 있었다. 그 ‘추억의 자전거여행’을 나이 들어 다시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박 동문의 제안에 김해균(의사), 박창선(포천가구조합 상무), 서상국(고교교사), 신경호(휴직 중), 이재봉(개인사업), 이학희(재무관리사), 황문수(빌딩관리), 장무상(개인사업) 등 8명의 동기가 호응했다. 이들은 모두 30회 동기들의 등산모임인 ‘삼공산악회’의 멤버들. 의기투합한 이들 9명은 그 때부터 자전거를 구입하고 유니폼을 맞춰 입고 인천으로, 북한강으로 예행연습을 갖기도 했다. 모임의 이름도 ‘30구르메’라고 정했다. ‘30회 동기들이 자전거를 타고 구름에 달가듯이 간다’는 뜻이다.

지난 7월 27일 토요일 아침 7시40분 잠실 한강과 탄천이 합류하는 곳에서 9명이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다. 첫째날은 90km를 달려 저녁 6시 여주에 도착, 모텔에 들었다. 장무상 동문은 개인사정으로 첫째날 구간만 참가하고 서울로 돌아가 이 때부터 8명이 함께 움직였다. △2일째 여주~수안보(94km) △3일째 수안보~상주 경천대(83km) △4일째 상주~왜관(76km) △5일째 왜관~ 창녕 우포늪(105km) △6일째 창녕~ 양산 물금(110km) 구간을 달려 7일째로 마지막날인 8월2일 양산 물금에서 을숙도까지 42km를 달려 대장정을 끝냈다. 마지막 구간에는 김재중 동문이 합류, 9명이 달렸다. 이날 부산의 30회 동기들은 얼굴이 새까맣게 탄 ‘8명의 건각(健脚)들’을 남포동으로 초대, 환영회를 베풀었다.

3일째 되던 날 수안보에서 출발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이번 자전거 장정에 참가한 박창선 동문은 “이 나이에 못해낼 줄 알았는데, 해내고 나니 이제부터 인생살이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8명 중 이학희, 박창선, 황문수, 서상국 등 4명은 환영회를 마치고 바로 야간버스편으로 동광양에 가서 그 다음날(8월 3일)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변을 따라 임실까지 1백67km를 달리는 등 기염을 토했다. 이들 중 황문수, 서상국 두 동문은 여기서 다시 2박3일 일정으로 영산강과 금강을 자전거로 종주한 뒤 귀경했다. 체력과 용기를 보여준 30회 동문들의 쾌거였다.

혼, 콘래도호텔 △**이제한** = 7월 19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장강태** = 8월 18일 장녀 결혼, 서초구 아펠가모 △**허남건** = 8월 18일 장녀 결혼, 연세대동문회관

〈30회〉

△**강수철** = 9월 7일 장녀 결혼, 이기대 더뷰웨딩 △**문호원** = 6월 29일 부친상, 대구 경북대병원 △**박모철** = 7월 6일 아들 결혼, 양재동 엘 타워 △**박진명** = 8월 2일 빙부상, 초량 인창병원 △**변용환** = 8월 4일 모친상, 구서동 행림병원 △**송보영** = 7월 18일 부친상, 부산대병원 △**신반철** = 6월 22일 아들 결혼, 송파구 더컨벤션 △**故 유영진** = 7월 1일 부친상, 삼성서울병원 △**이상탁** = 10월 5일 장녀 결혼, 종로구 새사람교회 △**이성기** = 7월 20일 장남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컨벤션센터 △**이종천** = 6월 25일 빙모상, 부산 성모병원 △**조재우** = 8월 24일 빙부상, 온종합병원 △**조현구** = 9월 7일 딸 결혼, 서울 엘타워

〈31회〉

△**김헌주** = 8월 5일 모친상, 주례 좋은삼선병원 △**박성필** = 7월 15일 모친상, 온병원 △**이기범** = 7월 10일 빙부상, 동래 한서병원 △**정용정** = 8월 23일 빙모상, 부산 좋은강안병원 △**정철수** = 8월 10일 장녀 결혼, 롯데호텔부산 △**차인용** = 6월 12일 빙모상, 동래 대동병원

〈32회〉

△**황문찬** = 7월 2일 모친상, 동산병원 △**황원백** = 7월 5일 빙부상, 김천요양병원

〈33회〉

△**김근수** = 9월 17일 모친상, 해운대백병원 △**권창주** = 7월 9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한명호** = 7월 8일 모친상, 인창병원 장례식장

〈34회〉

△**김중근** = 7월 15일 모친상, 포항시 세명기독병원 △**박철웅** = 8월 16일 빙부상, 부산대병원

〈35회〉

△**김동인** = 8월 23일 부친상, 양산부산대병원 △**김익성** = 7월 5일 모친상, 덕천동 부민병원 △**안병남** = 7월 12일 빙부상, 진해 연세병원 △**이창렬** = 6월 29일 빙부상, 부암동 온종합병원 △**정문종** = 7월 7일 부친상, 초량 인창병원

〈36회〉

△**박영찬** = 8월 20일 빙부상, 양산장례식장

〈37회〉

△**노태건** = 7월 23일 모친상, 창녕 한성병원 △**이춘우** = 8월 12일 부친상, 영락공원

〈38회〉

△**곽철우** = 8월 10일 장남 돌잔치, 청담동 프리마호텔 △**박배희** = 8월 16일 부친상

〈39회〉

△**조용성** = 8월 15일 부친상, 노원 을지병원

〈43회〉

△**강택룡** = 7월 20일 장녀 돌잔치, 더스타 뷔페

〈53회〉

△**김상욱** = 경중야구감독, 8월 16일 딸 돌잔치, 더파티

부음

박종환 동문 타계

박종환 동문(11회, 전 KBO사무총장)이 지난 8월 22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경남고에서 야구선수로 활동한 기업은행 야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롯데 자이언츠의 단장을 역임했다.

그는 프로야구 창립에 앞장섰고 KBO 사무총장 시절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박 동문은 환갑이 지난 나이에 검도에 입문, 공인 5단을 따는 등 지난해까지 13년째 검도인의 길을 걷다가 지병으로 쓰러졌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8월 24일 발인돼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됐다.

▲**허 택**(6회) = 전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6월 30일 별세

▲**이호원**(8회) = 8월 2일 별세

▲**임수업**(8회) = 전 양림코리아(주) 대표이사, 6월 6일 별세

▲**권연상**(12회) = 8월 1일 별세, 해운대 백병원

▲**이영현**(13회) = 7월 6일 별세, 괴정병원

▲**정 순**(14회) = 7월 30일 별세, 강남세브란스병원

▲**유종일**(17회) = 별세, 서울 수유리 대한병원

▲**고정대**(18회) = 6월 6일 별세, 경희의료원

▲**허정한**(19회) = 7월 24일 별세, 김해 조은금강병원

▲**장광호**(23회) = 8월 4일 별세,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

▲**박준철**(24회) = 6월 26일 별세

▲**우동철**(24회) = 전 증부유통 회장, 7월 4일 별세

▲**최우정**(24회) = 7월 19일 별세

▲**김동언**(34회) = 7월 30일 별세, 부산대병원

▲**최준영**(37회) = 8월 3일 별세, 강남 성모병원

〈어디서 무엇을_〉과 〈부음〉 관련 제보, 투고 및 문의는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 245-7551~3

김경희 동문의 용마열전 ⑤ / 故 김근준 동문(1회)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 처음 걸어간 동창회 선구자

김 경 희
(9회, 재경동창회 고문)

동창회 창립과 회원명부 제작에 주역

우리 동창회는 1947년에 창립됐으나 정작 회원명부가 발간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57년 9월1일이었다. 1회부터 11회까지의 동문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담은 이 최초의 회원명부를 주도해서 만든 이가 바로 故 김근준 선배(1회)다. 그는 이 회원명부에 '편집자'로서 이렇게 인사말을 썼다.

'우리 모교가 졸업생을 내놓은 지도 벌써 햇수로 해서 열 한번, 사람 수로는 3천명에 가깝습니다. (중략)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보매 이젠 팔뚝이 헤어진 옛 친우들의 모습을 찾을 길 없어 그 명부나마 만들어 보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으나 워낙 혼란한 시기를 겪은 우리들이라 겨우 꾸민 것이 이 조그마한 책입니다.(후략)'

1회 선배들은 알고 보면 불우한 팔자였다. 재학 중에는 갑자기 닥친 해방공간에서 '선배가 없는 설움'을 달래면서 과도기의 모교를 지켜내야 했고, 졸업 후에는 맏형으로서 동창회를 만들어 하나하나 기본 틀을 만들고 동문들을 결속시켜 나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선배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다.

김 선배는 1928년 6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남중 재학 중 해방과 함께 일본인 학생들과 일본인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고 한국학생들만 남게 됐는데 이 때 그는 동기들과 함께 학생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다. 김 선배는 학생자치회에서 위생부장을 맡았다. 한준석 선배(3회, 재경동창회 고문)는 "당시 교지 <보금자리> 창간에 장정호 문예부장 못지않게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이 김근준 선배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경남중고에서 영어교사... '제트기' 별명으로 유명

김 선배는 모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학과를 수료했다. 6.25 동란 와중에는 폐결핵으로 고생했다고 한다. 부친이 경영하던 '복본(福本)섬유(주)'의 대표로 일하다가 1959년에 경남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기 시작, 1963년까지 4년간 후배들을 가르쳤다. 이어 1963년 경남고로 옮겨 1965년까지 근무했다. 모두 7년간을 모교에서 봉직한 셈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김 선배의 별명은 '제트기'다. 그는 경남중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훈육교사를 겸했는데 학생들에게 무척 엄한 '호랑이선생님'이었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좀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생긴 얼굴, 불같은 성격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하나에서 열까지 엄하게 다스렸다. 항상 손에 매를 들고 다니며 교복의 단추 하나라도 풀려 있으면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제트기'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쌩'하고 나타날지 몰랐고, 일단 나타났다하면 어김없이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다. 학생들은 "제트기가 떴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도 일단 후다닥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한다.

김 선배는 그러나 알고 보면 매사 열정이 넘치는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다. 무욕(無慾)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어떤 타이틀에 욕심을 낸 적이 별로 없었다. 거추장스런 격식이나 허세,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 따위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젊어 보여 깜짝 놀라

필자가 김 선배를 처음 만나본 것은 동창회 총무에 임명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1966년이었다. 하루는 정동식 선배(1회, 당시 재경동창회 회장)가 느닷없이 "부산에 가서 한 번 만나봐라. 학구파고 결벽에 가까운 곧은 성격의 소유자다. 너와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며 김 선배를 찾아가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덜렁 부산으로 내려가 김 선배를 만나 인사를 드렸다.

처음 김 선배를 본 필자는 깜짝 놀랐다. 까마득한 1회 선배인 줄 알았는데 정작 만나보니 얼굴이 너무 젊었기 때문이었다. 남들이 보면 1회인 그와 9회인 필자를 같은 또래로 볼만했다. 이와 관련,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부산대학교 병원장을 지낸 문한규 선배(5회)가 독일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술에 취한 문 선배가 신신약국(9회 김재규 동문이 경영)에 있다가 마침 권오현 선배(1회)와 함께 들어오는 김 선배에게 "야, 너는 선배도 몰라보나?"며 힐책하는 일이 있었다. 외모만 보고 김 선배를 당연히 후배로 오해한 것이었다. 그 다음날 문 선배는 어제 만났던 사람이 1회 김근준 선배라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혼비백산했음은 물론이다. 문 선배는 나중에 어떤 글에서 이 일을 거론하며 '김 선배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냉한삼두(冷汗三斗)란 말을 연상하게 된다'라고 쓴 것을 내가 읽은 적이 있다.

모교 야구부 후원사업에 열성...일부 오해 사기도

김 선배는 경남고에서 퇴직한 후인 1968년 대신동에 '경남학원'을 세웠다. 그즈음 경남학원에 '경우회관(慶友會館)'이라는 간판이 내걸렸다. 그때까지는 본부동창회는 동창회 사무실이 없었는데 김 선배가 경남학원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본부동창회 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필자는 1968년 6월 1일 창간된 <경남중고동창회보>의 편집장으로서 특하면 김 선배에게 회보에 실을 부산 쪽의 기사를 보내달라고 독촉했고 김 선배는 싫은 내색도 없이 '동창회보의 부산주재기자' 역할을 잘 해주었다.

1976년 제31회 청룡기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모교 야구부와 함께 찍은 사진. 윗줄 왼쪽부터 정도해(1), 갈봉근(5), 정동식(1), 김영삼(3), 김근준(1), 노은식 교장, 송주창(4), 장태영(4), 김희련 감독(12), 야구부장 신창영, 맨 앞줄 오른쪽이 필자. 선수들 두 번째 줄 맨 왼쪽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최동원(31)선수.

고 김근준 동문

김 선배는 오랫동안 본부동창회 부회장으로 동창회를 위해 헌신했다. 당시 주로 서울에 머물러야 했던 김택수 본부동창회장을 대신해서 부산에서 동창회 살림을 혼자 도맡다시피 해 꾸려간 것이다. 모교와의 가교역할은 물론이요 특히 모교 야구부의 후원사업에 힘을 쏟았다. 부산시 야구협회 회장을 1978년부터 1984년까지 6년 간 맡아 봉사하기도 했다.

그는 모교 야구부를 후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동창회라는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난해한 방정식도 동원해야 하는 법이다. 김 선배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처음으로 걸으며 동창회를 위해 평생 봉사한 선구자였다.

김 선배는 2010년 1월 1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유족으로는 경남여고 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송봉수 여사와 아들 인용(34회, 부산 미치과원장), 재용(42회,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장녀 현주(남편이 화가였던 故 권훈칠 동문, 20회), 차녀 현혜(남편이 서석희, 29회, 변호사)가 있다. 두 아들, 두 사위가 모두 '용마'다.

동창회장기

제15회 용마골프대회

- **일 시** : 2013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동시출발(샷건 방식)
  ※ 오전 9시까지 등록(접수)완료
- **장 소** : 동래 베네스트 C.C (Tel. 051-580-0300)
- **참가인원** : 200명(50개조) 선착순
- **참가신청** : 1) 각 동기회 회장 및 국장
  2) 각 동기회 골프회 회장 및 국장
  3) 본부동창회 사무국
  Tel. 051-245-7551, Fax. 051-245-7550
- **대회구분** : 1) 기별대항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2) 단체조 개인전 (Gross 계산)
  3) 개인전 A · B조 (뉴페리어 방식)
  4) 용마가족 여성부 개인전 (동문 부인)
- **시 상 식** : 오후 5시 동래 베네스트 C.C 야외 홀

※ 벤츠 홀인원상, 이글특별시상 등 각종 시상품과 행운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택 동문, '군포 G샘병원' 9월 6일 개원

개원기념 음악회 세 차례 잇달아 개최

이상택 동문(13회, G샘병원 이사장)이 지난 8월 18일 저녁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군포G샘병원 개원을 기념하는 블라디보스톡 팝스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블라디보스톡 팝스 오케스트라는 레미제라블, 자클린의 눈물, 백학 등의 명곡들과 함께 영화 미션임파서블, 여인의 향기 OST 등 대중적으로 친숙한 음악을 선보여 8백여명의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동문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G샘병원 지하1층 G샘누리홀에서 G샘병원 개원을 기념하는 음악회(SBS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택 동문.

한편 G샘병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원식을 갖고 영업에 들어가며 그 다음날인 9월 7일 오후 6시 G샘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기념 음악회 제3탄으로 'G샘병원 가요제'를 개최한다.

이 동문은 그동안 매년 환우와 지역주민,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샘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조정민 동문, 서울 강남에 '베이직교회' 세워

설교대 없는 개척교회..."본질로 돌아가자" 역설

TV앵커에서 목사로 변신(동창회보 388호 17면 보도)한 조정민 동문(23회)이 서울 청담동 이앤유빌딩 2층에 베이직교회 (Basic Community Church)라는 개척교회를 세워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3월 3일 이 교회에서 첫 집회를 가졌다.

조 동문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흔히 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크기나 신도 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TV조선에 출연, "한국교회는 욕을 들어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종교가 권력이 됐다. 돈 · 명예 · 인기를 충족하기 위해 (종교인의 길을) 가는 사람 많이 있다. 예수님처럼 100%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하는 길이라면 몇이나 남아 있겠느냐"며 대형화되고 있는 한국교회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정민 동문.

조 동문이 세운 베이직교회는 카페를 그대로 교회로 쓰고 있다. 설교대 같은 교회 비품이 하나도 없으며 예배를 볼 때는 카페의 탁자를 치우고 의자 2백개를 들여서 예배를 본다.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신자가 3백여명이나 돼 신자들은 자리가 없으면 서서 예배를 본다고 한다.

인물 포커스

용마바둑회장 김대욱 동문(29회)

"가을쯤 '용마 최강자전' 개최 생각 중"

"모교에서 바둑대회 여니 다들 좋아하더라"

"모교에서 바둑대회가 열린 것을 다들 좋아합디다."

지난 6월 30일 경남고에서 열린 '제11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를 성황리에 끝낸 김대욱 용마바둑회장(29회,TM마린 대표)은 "참가자들이 바둑대회 참가 겸 모교 캠퍼스를 방문하게 돼 좋았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용마바둑대회는 시내 중앙동에 있는 모 기원을 빌려 개최해왔었다.

김 동문 올해 초 용마바둑회 회장을 맡았다. 용마바둑회는 지난 2년 동안 회장자리가 공석이었고 용마바둑대회도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다. 이번 바둑대회는 그가 회장의 된 후 가진 첫 행사였다.

그는 "우리 동문들이 즐기는 여러 여가활동 중에서 인구로 따지면 바둑이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일 것"이라며 "바둑을 매개로 해서 동문 선후배가 우애를 다질 수 있도록 앞으로 용마바둑회의 활동을 더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최근 YES24닷컴이 주관한 '고교동문바둑대항전'에서 우리 동문팀이 지난 8월 17일 서울고팀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사실을 전하며 "고교동창회들 중에서 우리 '경고바둑'이 비교적 센 편"이라고 자랑했다.

그는 "내년에도 모교에서 바둑대회를 열 생각이며 단체전(기별대항전)과는 별도로 오는 가을쯤에 개인전으로 '용마 최강자전'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욱 동문.

김 동문은 바둑과의 인연이 남다르다. 고학을 하며 서울대 공대에 다닐 때 한국기원에서 프로기사들을 알게 돼 함께 자취생활을 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 졸업 후 사회에 나와 사업에 성공한 그는 지난 2010년 생활이 어려운 50세 이상의 시니어 프로기사들을 돕기 위해 큰 상금을 내걸고 '대주배 시니어 프로 최강자전'을 출범시켰다. 옛날 프로기사들에게 신세졌던 것을 갚기 위해 만든 '보은(報恩)의 기전(棋戰)'이다. 그 후에도 그는 바둑영화 '돌'의 제작비 전액을 대는 등 바둑보급을 위해 힘 쏟고 있다. 김 동문의 바둑실력은 아마 5단.

인물 동정

신동규 동문(23회) 아주대 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임명

신동규 동문(23회,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아주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임명됐다.

신 동문은 지난해 6월 농협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올해 5월 사임했다.

정문기 동문(26회) 부산광역시 의료원장 취임

정문기 동문(26회)이 지난 7월 1일 제15대 부산광역시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정 동문은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부산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했다. 2007부터 3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고 지역인사로는 처음으로 대한비뇨기과학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다.

박봉두 동문(26회) 동의대 교학부총장 취임

박봉두 동문(26회)이 지난 5월 29일자로 동의대 교학부총장에 취임했다.

한편 박 동문은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를 방문, 해외봉사활동 중인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시청 및 관공서, 진출 기업과 한인회 등과 해외인턴십 및 유학생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영빈 동문(27회) 가치혁신부문 기업특별상 수상

박영빈 동문(27회, 경남은행 은행장)이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에서 '가치혁신부문 기업특별상'을 수상했다. 최고경영자로서 경영평가, 사회적 책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박 동문은 최근 열린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경남은행장으로 재신임을 받아 내년 3월까지의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황삼진 동문(27회)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취임

황삼진 동문(27회, 전 한국은행 제주지점장)이 지난 7월 1일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으로 취임했다.

황 동문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 1981년 한국은행에 들어가 본부 자금부와 조사부, 공보실, 국제국, 금융시장국, 외환분석팀장 등을 거쳐 제주본부장을 지내고 2010년부터 제주은행 상임감사위원을 맡아왔다.

조용수 동문(27회) 동아대 건축디자인패션대 학장

조용수 동문(27회,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이 지난 7월 14일 동아대 건축디자인패션대학장이 됐다.

박해윤 동문(29회) 주 아일랜드 대사 부임

박해윤 동문(29회)이 지난 6월 15일 박근혜정부의 첫 해외광관장 인사에서 아일랜드 주재 대사로 임명됐다.

박 동문은 서울대 해양학과를 나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했다. 1984년 외교통상부에 들어가 영국 대사관 서기관, 주UN 대사관 1등서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주이라크 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외교통상부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맡아왔다.

왕정홍 동문(31회) 감사원기획관리실장 발령

왕정홍 동문(31회)이 지난 5월 12일 감사원인사에서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왕 동문은 지난 해 10월부터 감사교육원장으로 근무해왔다.

소설가 허택 동문의 〈용마 탐구〉 – '구포집 3대주인' 장영근 동문(22회)

"추어탕과 복국이라면 구포집 아잉교"

부산의 미식가 치고 '부평동 골목길에 있는 구포집' 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포집은 60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오래된 식당의 주인이 장영근 동문(22회)이다.

외할머니 – 어머니 – 며느리로 이어진 손맛

구포집은 원래 장 동문의 외할머니(故 김분옥 여사)가 60여 년 전 지금의 자리 부근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요리사로 큰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후 귀국해 부평동의 한 허름한 초가집에서 '구포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경상도식 추어탕을 팔기 시작했다. 그 후 장 동문의 어머니 신가매 여사가 1959년 식당을 이어받았고 장 동문은 지난 1997년 다시 어머니로부터 식당을 물려받아 '구포집 3대 주인'이 됐다.

장 동문은 1994년까지 해운회사에 다니다가 명예퇴직했다. 그 후 자영업을 하던 중 '어머니와 아내의 설득으로' 1997년에야 가업을 이어받게 됐다.

그는 "당초 식당을 물려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60년 이상 내려 온 가업이 끊어진다는 어머니와 아내의 설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 초가집에서 개업...음식맛 60년 전 그대로

– 어릴 때부터 봐왔던 구포집과 지금의 구포집이 달라진 것은?

"신장개업으로 건물이 변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다. 메뉴도, 조리하는 방법도, 음식맛도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구포집의 주 메뉴는 경상도식으로 조리하는 추어탕과 복국, 파전 그리고 싱싱한 생선회 등이다.

식당이 한 자리에서 60년 이상 명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음식맛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포집은 3대까지 음식조리법이 잘 전수돼 내려왔다. 먼저 장 동문의 어머니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구포집을 경영하며 손맛을 전수받았고, 이번에는 장 동문의 아내 노영희씨가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식당일을 도우며 조리비법을 익혔다.

그는 "아내가 시집살이라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서 음식 손맛을 배우면서 함께 식당을 해왔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장 동문의 부인 노씨에게 "시집살이 하면서 식당운영까지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느냐"고 한 마디 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시집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님에게서 맛깔 나는 음식솜씨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구포집의 맛깔 나는 음식맛에는 고부간의 사랑이 베여있는 듯 했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수 십년된 단골

구포집에 들어서면 입구 옆 벽면에 걸려있는 액자가 먼저 눈에 띈다. 이 집의 음식맛에 탄복한 어느 손님이 남긴 글이라는데 이런 내용이다.

파전의 봄 향기는 피로함을 풀고 / 추어탕의 방아 향기는 마음을 살찌우고 / 복국의 바다 향기는 본성을 눈 띄우네.

장영근 동문부부. 구포집 간판에는 'since 1959'이라고 돼 있으나 실제 구포집이 처음 문을 연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이다.

구포집의 '60년 전통의 음식맛'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는 글이다.

구포집은 2012년 한식재단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식당 100곳'에 포함되기도 했다. 오래된 식당인 만큼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는 수 십년된 단골들도 많다.

"낯익은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서 옛 맛 그대로의 맛이 난다고 말해주면 흐뭇하다. 옛날 법원과 검찰청이 이 부근에 있을 때 오곤 했던 법조계 인사들이 요즘도 가끔 들린다"

음식맛을 내는 비법을 묻자 장 동문은 "그건 비밀인데..."라며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의 주 메뉴 중 하나인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서 만드는 경상도식인데, 생선회를 뜨고 남은 서더리뼈를 우려낸 육수에 미꾸라지 외에도 우거지와 숙주나물, 고사리 등 건더기를 푸짐하게 넣고 2년 정도 숙성시킨 우리 집만의 대물린 된장으로 간을 맞춘다."

주 메뉴인 밀복으로 끓이는 복국 또한 국물이 시원하기로 유명해서 "한번 맛 본 일본인들이 국물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곤 한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넘겨줘 4대로 이어지게 할 생각"

구포집이 추어탕과 복국이 묵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장 동문의 모친이 여든을 넘긴 연세임에도 매일같이 며느리인 현재의 안주인과 함께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손수 구입하고 된장도 직접 담그는 데에도 있다.

– 앞으로 아들에게 구포집을 넘겨줘 4대째 가업을 잇게 할 생각인가.

"물론이다.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애들이 가업을 잇겠다면 당연히 환영한다. 현재 아들녀석을 은근히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장 동문은 주위에서 효자로 통한다.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장 동문 부부는 노모와 함께 아침식사를 한다. 또한 장 동문 부부는 금슬 좋은 잉꼬부부로 소문이 나 있다.

인터뷰가 끝날 저녁 무렵, 구포집에는 장 동문의 동기들이 한 두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구포집은 22회 동기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다. 동기들끼리 맛깔 나는 음식을 안주삼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허택(25회, 치과의사, 소설가)〉

전국의 동문들에게 동창회보 직접 개별 발송해드립니다

본부동창회는 재경지역을 포함, 전국의 모든 동문들에게
동창회보를 직접 우편으로 개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누락된 동문께서는 구독신청을 해주시면 접수 되는대로
바로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구독신청/주소 변경신고 = 본부동창회 사무국

Tel 051) 245-7551~3 / Fax 051) 245-7550

초대석 / 강만수 동문(18회, 전 기획재정부 장관)

"욕 듣더라도 소신껏 일 해...후회는 없다"

◇ 만난 사람 = 박승준(27회, 인천대 중어중문학과 초빙교수)

지난 4월 KDB금융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강만수 동문(18회)을 지난 8월9일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만났다. 반팔 남방차림으로 나온 강 동문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아도 되니 살 것 같고...백수라서 아침시간이 느긋해졌다"며 웃었다. 편하고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강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구 재무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지난 4월 KDB금융그룹 회장을 끝으로 38년에 걸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일에 대한 열정과 화려한 공직 경력을 볼 때 백수로 세월을 보내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김기춘 동문(12회)이 75세에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면 그도 언제 다시 공직에 컴백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강만수 동문. 그는 "공직생활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설사 욕을 들더라도 추진했다"며 "후회는 없다"라고 말했다.

딸이 남기고 간 손녀 숙제 거들며 여름휴가

요즘 같은 지독한 더위에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더니 그는 노자 이야기부터 꺼냈다.

"여름휴가를 손녀와 함께 해인사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노자를 읽었는데 '도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즉 행함이 없지만 행하지 않음도 없다'고 했더군요. 아무 하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자는 또 유위이무위(有爲而無爲), 다시 말해 행하여도 행하지 않음과 같다고도 했더군요."

그는 "노자를 여러 번 손에 잡았다가 재미가 없어서 그만 덮곤 했는데 이번에 손에 든 중국 난징(南京)대학의 한 교수가 쓴 노자 해설책은 아주 재미나서 한 번 다 읽은 것을 다시 한 번 다 읽었다"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노자의 말 속에 최근 그의 처지와 관련해 어떤 비유가 들어 있는 듯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려다가 '여름휴가를 손녀와 함께'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왜 손녀를 데리고...?"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

"우리 집안일입니다만, 2년 전에 33살 된 딸이 암으로 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를 그 손녀의 숙제를 거드는 시간이 되도록 계획을 짰지요. 손녀를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공직을 그만 둔 뒤로 주로 하고 있는 일도 딸이 남기고 간 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손녀의 사진과 동영상이 어찌나 많은지 지금까지 몇 달째 작업 중입니다. 허허"

그는 먼저 떠난 딸과 홀로 남은 손녀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애써 남의 이야기하듯 하는 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지나갔다.

공직자들은 헌법 읽어봐야... '국민이 주인' 알아야

– 앞으로의 계획은?

"책을 쓸 생각입니다. '선거와 경제정책', '정치와 경제정책'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데에는 각국의 정치가 기여한 몫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기위해 복지공약은 늘리면서도 세금은 못 올리고...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OECD 28개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본은 손자들이 낼 세금까지 다 썼다고 하던데요. 경제가 지탱이 안 되면 정치도 지탱이 안 되는 것인데..."

최근 벌어진 정치권의 증세논란에 대해 그는 할 말이 많고 걱정도 많은 듯 했으나 말을 아꼈다.

– 38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무엇보다 공직자들은 국민 즉 민원인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헌법을 찬찬히 잘 읽어봐야 합니다. 또 혼자만 잘 해서는 안 되고, 권한이란 말도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권한이란 권리에 의무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흔히 인사는 장관의 고유권한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인사권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는데, 권한은 '선량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싶네요."

–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해온 일에 만족하는지.

"스스로 평가하기가 좀 그렇긴 하나 후회 없이 공직생활을 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정책과 감세정책에 대해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논쟁이나 비판이 겁이 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피한다면 그건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지요. 환율문제만 해도 '강만수가 환율을 올려놓았다' 고들 하는데, 그건 강남 아줌마들이 해외연수 보낸 자녀들에게 보내는 달러가 많아지니까 불평한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결국 '강만수 물러나라'는 것으로 발전되더군요. 국제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것이 현대 국가 경영의 기본입니다. 나는 설사 욕을 들더라도 해야 할 일들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회는 없습니다."

가난으로 휴학...그러나 경남고 다닌 건 큰 행운

강 동문이 소신을 갖고 추진한 일들 중에는 1924년 조선총독부가 잘못 선포한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고친 것도 있다. 전 세계가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만 좌측통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직자들이 논쟁에 휩싸이는 걸 겁을 내 그동안 누구도 '총대'를 매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1년 동안 50여개의 정책을 추진했다. 일 년이 54주이니 매주 한 개꼴로 정책 아이디어를 내 추진한 셈이다. 그 정책들은 부하 직원들이 창안해서 올린 것들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진두지휘해 추진한 것들이다. 이런 그에게 언론은 '강 고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 경남고 재학 시절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시골 중학교에서 경남고로 진학한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의 대부분은 경남고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가장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한 것도 경남고 시절이었고요. 집이 가난해 1년간 휴학하기도 했고, 입주 가정교사를 하는 등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지만 경남고시절은 말 그대로 청운의 꿈을 키웠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만약 내가 경남고를 다니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 동문은 매일 아침마다 교회 새벽기도에 갔다 와서 테니스를 하며 땀을 흘린다. 지난 1985년부터 20년간 코치로부터 배우며 테니스를 계속해오고 있다. TV는 안본 지가 오래됐고 영어잡지인 이코노미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구독하고 있다. 요즘은 시간이 나면 로린 마젤로부터 선물 받은, 그가 지휘한 교향곡을 듣고 있다고 했다.

집을 떠나있는 자녀들에게 '동창회보'를 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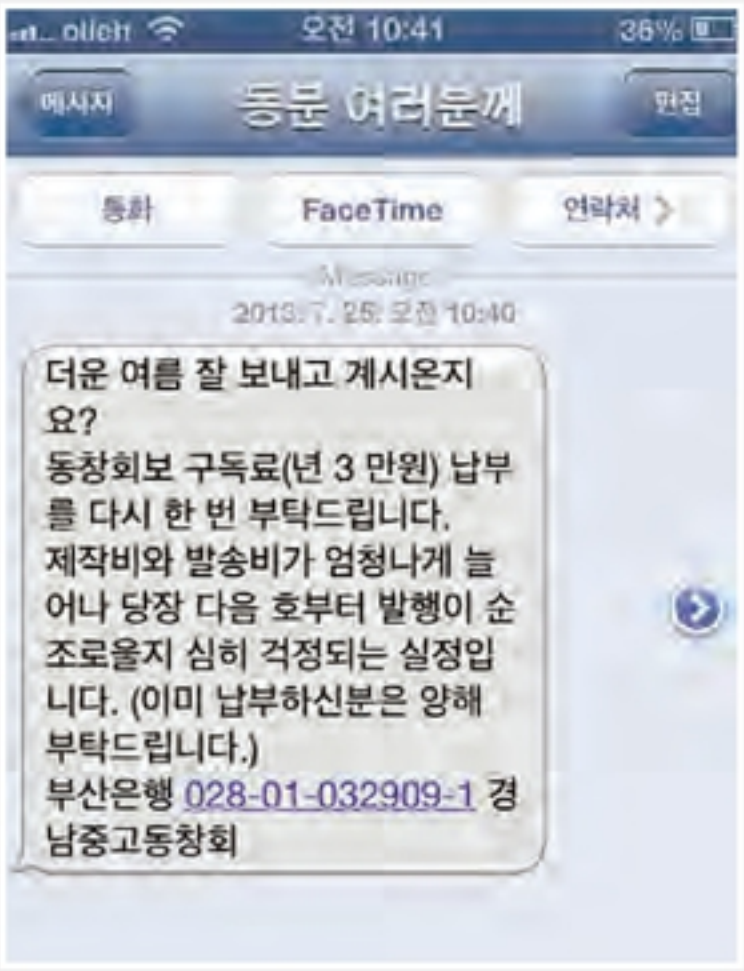
아빠의 모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구독신청 안내

추가 구독료(년 3만원)를 동문님의 이름으로 먼저 송금해주시고
회보를 보낼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본부동창회 사무국 ☎ 051)245-7551~3

이 문자메세지 받아보셨지요?



본부동창회 사무국이 지난 7월 25일 동문 여러분들께 전화로 일제히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사정이 다급하면 이런 메시지를 보냈겠습니까?

“당장 다음 호부터 회보발행이 순조로울지 심히 걱정된다”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동창회보

우편으로 받아보는 동문 수 = 1만5천100명

구독료를 낸 동문 수 = 8월 24일 현재 3천223명

아직 구독료를 내지 않은 동문들께서는
빨리 구독료(년 3만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승효상 동문의 한국건축 산책 ③ – 獨樂堂

담장 낮은 집에서 홀로 됨을 즐긴 '고독의 집'

집 밖 자계천에서 바라볼 때만 보이는 독락당의 계정(溪亭). 계정은 집 안에서는 마당을 형성하는 벽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독락당의 건물들은 마당을 형성하기 위한 한낱 도구로 쓰였다.

회재 이언적이 살았던 집...마당이 여러 개

경북 안강에 '독락당(獨樂堂)'이라는 옛집이 있다. 조선 중종 때 성리학의 거두 회재 이언적(1491~1553)이 정쟁에서 밀려난 후 낙향하여 지은 집이다. 원래는 태어나고 자란 양동마을로 돌아가야 했으나, 불혹의 나이로 중앙정치무대에서 쫓겨난 몸은 첩실이 편했을까, 둘째 부인이 사는 안강의 계곡으로 간다. 이곳에는 이미 안채와 숨방채, 아버지가 지은 정자가 있었는데, 회재는 주변 경관을 끌어들이는 탁월한 수법으로 이 집을 대대적으로 증축하여 독락당이라 이름하고 7년을 '홀로 즐기며' 살았다.

이 집은 우선 그 높이가 몹시 낮아 의아하다. 담장도 낮지만 그 안에 있는 집들 모두 마치 땅으로 꺼진 듯 낮다. 후대에 세운 솟을 대문 만이 높아 본채와 부조화를 이루는데, 당혹스러운 것은 대문을 들어서 앞마당을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종잡을 수가 없다. 세 개의 입구가 있는데, 오른쪽 하나는 계곡으로 연결되는 좁은 통로고, 나머지 두 개의 문 중에서 왼쪽 하나를 열고 들어가니 깊고 길다란 마당이 있다. 돌아보면 방금 지나온 문이 이 큰 집의 정문인 셈인데 그 크기가 너무도 작다. 아마도 이 좁은 마당을 가두기 위함일 게다. 이 마당에 붙은 안채의 마당은 그래서 더 비밀스런 세계로 보인다.

집 안에서는 마당 이루는 벽체의 일부인 정자

이곳을 나와 다시 반대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른 마당이 나오는데 사랑채인 독락당의 영역이다. 위엄 있는 여느 사랑채와는 달리 불과 한 단 위에 지은 네 칸의 집은 집 자체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담장으로 구획된 마당이 중심이다. 가만 보니 이런 마당이 여기 하나가 아니라 이 집의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다. 맨 뒤편 사당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 두 개의 마당을 겹쳐 비밀의 세계를 만들고 있으며, 창고로 쓰이는 공수간 마저 은밀한 마당으로 독립되어 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이 집의 정자인 계정(溪亭)이다. 사진으로 보면 아름다운 건물을 두리번거리며 찾는데 뒤편 마당 구석의 건물이 계정이라고 한다. 그럴 수가... 집의 동쪽 밖 계곡을 흐르는 자계천(紫溪川) 너머에서 그토록 아름답게 보였던 건축이지만, 놀랍게도 이 정자는 안에서는 마당을 형성하는 벽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집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 건물은 마당을 형성하기 위한 한낱 도구며, 그 각기 다른 마당은 서로 독립된 세계다. 불혹을 넘어 지천명을 앞둔 회재는 그런 마당 어디에서도 은둔하며 '독락'하려 한 것이다.

이태리의 로룬다는 '혼자 지배하며 즐기는 집'

이 독락당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집이 거의 같은 시대에 서양 땅에 지어진다. 서양건축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면서 현대에 이르도록 서양건축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된 '빌라 로툰다(Villa Rotunda)'라는 집이다. 회재보다 17년 후에 태어난, 르네상스 최고의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1508~1580)가 은퇴한 사제를 위해 설계한 이 집은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 비첸차의 교외에 있다. 한적한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 한 가운데에 지은 이 집은 정방형의 평면을 십자로 가른 다음 가운데 둥근 홀을 두어 이를 로툰다라고 불렀다. 이 로툰다 홀의 둥근 천정과 벽면에 그려진 그림에는 신들로 둘러싸인 우주가 묘사되어 있다. 홀의 중앙에 서면 동서남북으로 뚫린 통로를 통해 밖의 풍경이 한 눈에 파악되는데, 정점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는 집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중심 된 자인 듯 존재감을 드높이게 된다. 그러니 이 집은 자연과 대립적 관계이며 그 지배의 우월을 나타내기 위해 언덕 위에 우뚝 솟는 게 당연했다.

나를 세상의 지배자로 만들어 주는 이 집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서양집들의 원전이 되었고, 지배체계를 따지고 종속관계를 중요시해 온 서양사상의 핵심이 되어 현대도시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어디서든 자연과 더불어 일체가 되기를 원한 독락당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빌라 로툰다가 혼자 지배하며 즐기는 집이니 한자로 쓰면 역시 독락당 아닌가. 그렇다면 회재의 독락당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이 홀로 서야 이(理)가 생긴다"는 회재에게 독락의 뜻은 '혼자서 즐기는 집'이 아니라 '홀로 됨을 즐기는, 고독의 집'이었다.

독락당 전경. 마치 땅 속으로 꺼진 듯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집에는 여러 개의 독립된 마당이 있다. 집주인은 그런 마당 어디에서도 은둔하며 홀로 됨을 즐기려고 했다.

'서양의 독락당' 빌라 로툰다의 전경. 주변을 지배하려는 듯 높은 언덕 위에 서 있다. 경북 안강의 독락당과는 성격상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승 효 상
(25회, 건축가)

박승준 동문의 체험 중국 이야기 ⑨

술 즐기되 절제...술자리에서 격식 차려

박 승 준
(27회,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지난 2009년 오랜 북경특파원 생활을 끝내고 귀국했을 때 필자가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한국인들의 음주행태였다. 음주가 보편화됐다고 할까, 남녀노소가 '시도 때도 없이 마셔대는' 풍조가 엿보였다. 우리에 비하면 중국인들은 각종 축하연 등에서 술을 즐기면서도 비교적 과음과 폭음을 하지 않는, 절제된 음주습관을 갖고 있다.

중국인들의 절제된 음주습관의 배경에는...

우리처럼 중국에서도 각종 행사나 손님접대에 술이 빠지지 않는다. '술이 없으면 결례'라는 말이 있듯이 각종 행사에 술을 내놓는 것이 중국인들의 오래된 풍습이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내놓는 풍습'이 원래는 '금주' 또는 '술을 삼가는 일'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우(禹)임금이 의적(儀狄), 두강(杜康)이 양조한 미주(美酒)를 맛보고는 "술은 훌륭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맛이 있어서 장래에 술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잃는 자가 나올 것이다"라며 이때부터 술을 빚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 아예 술을 만들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그 후 주(周)의 무왕도 제사, 전승(戰勝)축하, 풍작(豊作)축하 등 축제일의 연회석에 한해서만 술을 내도록 제한했다고 한다. 오늘날 중국인들의 절제된 음주습관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음주가무 즐기는 것을 깔보는 경향도 있어

또 중국의 주류인 한족(漢族)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감과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중국에는 모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한족들은 주류로서 이들 소수민족을 은근히 깔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젠가 중국 관영 중앙TV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55개 소수민족을 소개하는 시리즈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소수민족들은 하나같이 술을 즐겨 마실 뿐 아니라 술을 마셨다하면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미덕으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었다. 중국 관영 중앙TV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소개했다. 필자는 그 때서야 이른바 '문명된 민족'임을 자부하고 있는 한족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소 경멸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는 말에는 변방에 모여 살면서 툭하면 술이나 마시고, 취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며 살아가는, 다소 문명이나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소수민족들의 공통된 나쁜 습성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서 우리를 두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기록한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중국인들, 즉 한족들의 음주습관에는 어떤 정형화된 격식이 있다. 우리의 술자리 문화와 다른 점들을 몇 가지 들어 본다.

은근한 건배사...술자리에서 정형화된 격식 지켜

먼저 술자리에서의 좌석배치다. 출입구 문과 마주보는 자리가 그날 접대하는 주최자의 자리다. 주최자의 오른쪽에 그날의 주빈을 앉게 하고 주최자의 왼쪽자리에는 그 다음의 주빈을 앉힌다. 소위 '술 상무'로 불리는 주최 측 인사는 출입문을 등지고 앉는다.

술자리가 시작되면 주최자가 먼저 환영인사말을 한 후 간단하게 건배사를 한다. 건배사는 우리처럼 '구구팔팔'식의 군대식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은근하다. 자주 듣게 되는 건배사로는 "간칭선, 이커우면, 간칭첸, 톈이톈(感情深, 一口悶, 感情浅, 舔一舔)"라는 게 있다. "정이 깊으면 단숨에 마시고, 정이 없으면 입에 대기만 하라"는 뜻이다. 이 건배사를 들고는 술잔을 비우지 않을 손님은 없을 것이다. "주펑즈지첸베이사오, 넝허둬사오허둬사오(酒逢知已千杯少, 能喝多少喝多少)"라는 말도 흔히 듣는 건배사 중 하나다. "술친구를 만났으니 1천 잔의 술도 많지 않으리.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마시자"라는 말이다.

이어 '깐베이(건배)'를 외치고 원샷을 하는데 건배사를 한 사람은 첫잔을 한번에 비우고 나서 술잔을 거꾸로 들어 자신이 잔을 비웠음을 보여준다.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손님은 이 첫잔만은 잔을 비워야 한다. '건배'는 말 그대로 잔을 다 비운다는 말인데, '건배'라고 외치고도 잔을 비우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환영주는 최소한 3순배, 즉 손님이나 초청자나 모두 최소 석잔까지는 건배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최측이 3순배의 환영주를 돌리기 전까지는 손님이 나서서 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손님이 몇 잔 째 마시고 있는지 속으로 계산

우리는 첨잔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비해 중국인들은 상대방의 술잔이 조금만 비어도 첨잔을 한다. 첨잔으로 술잔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게 하는 것을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것 같다. 건배 제의를 하면 모두 술잔을 부딪치는 것은 우리와 같다. 잔을 마주치는 것을 '펑베이(碰杯)'라고 하는데 이 때 자신의 술잔 높이를 낮추며 상대방에게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식의 술잔 돌리기는 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우리에 비하면 과음을 하지 않는 등 절제된 음주습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은 술자리에서 건배하는 중국인들 모습.

각자 주량에 따라 알아서 마실 수 있는 '제량권'이 우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나 접대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손님이 술을 많이 마시도록 정말 열심히 권한다. 손님이 즐겁게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호감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국사람들이다. 접대하는 사람은 손님이 몇 잔째 마시는지를 속으로 헤아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러나 자신은 이런저런 핑계로 술을 가급적 적게 마시려고 애쓴다. 우리 같으면 주인의 이런 태도는 용납되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인정된다.

중국의 '8대 명주'

마오타이 – 내수용과 수출용 상표 달라
고정공주 – '술 중의 모란꽃' 칭송받아

중국에는 약 4천여 종의 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년 전국 평주회(評酒會)에서 '명주'로 뽑히는 술을 소개한다.

◇ **마오타이(茅臺酒)** = 산지는 귀주성(貴州省) 인회현(仁懷縣) 모태진(茅台鎭)이고 8백여년의 역사가 있다. 생산지 이름을 따 모태주(茅台酒)가 유명하다. 술 도수는 52-54도 사이를 유지하며 중국의 유명한 술 가운데서 도수가 제일 낮다.

보통 7개월 주기로 생산되고 생산된 후 창고에서 4년 이상 저장했다가 다시 20년, 10년, 8년, 5년, 30년, 40년씩 저장한 술과 혼합해 출고한다. 모태주의 상표는 내수 판매용과 수출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수는 "금륜패(金輪牌)", 수출은 "비선패(飛仙牌)"이다.

◇ **분주(汾酒)** = 1천5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술이다. 도수 61도의 고도주(高度酒)로 술빛이 맑고 빛난다.

◇ **오량액(五粮液)** = 귀주성(貴州省)에서는 중국의 명주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양예(五粮液)가 유명하다. 이 술은 중국의 증류주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많다. 이 술의 독특한 맛과 향의 비결은 곡식 혼합비율과 첨가되는 소량의 약재에 숨어 있다고 한다. 마오타이와 함께 중국의 대표하는 명주로 꼽힌다.

◇ **죽엽청주(竹葉青酒)** = 수수를 주원료로 10여가지의 천연약재를 첨가, 양조한 술이다. 음주 후 나타나는 두통 등의 부작용이 없다. 기(氣)를 충족시키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양하대곡(洋河大曲)** = 도수 48도의 술이다. 강소성(江蘇省)에서 생산되는데 중국 국내는 물론 국제평주대회(國際評酒大會)에서 여러차례 상을 받았다. 중국의 평주가(評酒家)들은 양하대곡이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연하고 맑고 깔끔한 향기 등 다섯가지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8대명주' 중 하나로 꼽히는 마오타이주.

◇ **노주특곡(盧酒特曲)** = 45도의 이 술은 4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사천성(四川省) 노주(盧州)에서 생산되며 향기가 농후하고 순수한 것이 특징이다.

◇ **고정공주(古井貢酒)** = 45도의 이 술은 '술 중의 모란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옛날 삼국지(三國志)의 조조(曹操)가 신의(神醫)로 유명한 화(華)의 고향 안소성(安徽省)의 고정(古井)물로 사용하여 만든 이 술을 한제(漢帝)에게 조공을 올려 황제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데에서 고정공주(古井貢酒)란 이름이 붙었다.

◇ **동주(董酒)** = 수수를 주원료로 산속의 순수한 산천수(山川水)를 사용하고 여기에 1백30종의 유명 약재를 첨가해서 만드는 술이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바다로 간 농부 ②

황파 넘실대는 인도양에서 목숨 건 참치잡이

천 금 성
(14회, 소설가)

일러스트 = 이철원(조선일보 기자)

졸지에 고립무원이 된 나는 습그머니 가까운 배로 올라갔다. 그 배가 만약 일본선이라면 나는 넉넉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갑판의 선원들이 조잘대는 말투가 흔히 중국식당에서 듣던 그대로인 것이었다. 그야말로 설을 지고 불로 뛰어든 꼴.

시퍼런 사시미칼에 놀라 최악의 선택

더욱 나를 까무러치게 한 건 막 선미로부터 내달아오는 웬 뚱뚱한 녀석의 손에 쥐어진 사시미칼이었다. 순간 나는 바다로 뛰어드는 게 최선의 피신책이라 판단, 엉겁결에 두 어 뼘 남짓한 두 배 사이로 몸을 내던졌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최악의 선택이었다. 두 배 사이의 공간이라야 두 팔을 휘젓기도 어려울 만큼 협소한 데다 파도가 조금만 일렁거려도 두 배 옆구리가 프레스기 마냥 달라붙을 게 틀림없어서 나는 마치 강원도 덕장에 내걸린 오징어 꼴이 되고 말 것이었다(다행히도 청명한 날씨가 나를 살려냈다).

허우적거리며 물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니 휘어들어간 두 배의 현측 만곡부(彎曲部)가 무시무시하게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사력을 다해 고슴도치 헤엄을 쳤다. 드디어 저만치로 괴물 같은 스크루가 보이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대만선 범위 내였다. 그럴 때 어느 녀석이 날카롭고 긴 대나무를 찔러 넣어도 나는 끝장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저만치로 눈에 익은 배 옆구리가 보였다. 동기생들과 함께 나를 남태평양 사모아까지 태워다 준 훈련선 진달래 호였다. 행동통일을 한 동기생들과 달리 나는 귀선하는 방법으로 상어가 득시글거리는 바다를 헤엄친 것이었다.……

그 사고로 진달래 호는 출항이 사흘이나 늦었다. 문제는 신 아무개가 시맨스클럽에서 야자나무 막대기로 애매한 일본인 어로장을 마구 짓찧은 데 있었다. 느닷없는 공격에 그는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치료비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기다가와 어로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겨우 사태가 해결되었다.

원양어선 항해사가 돼 참치 잡으러 인도양으로

그 해(1967년) 연말, 수료식과 함께 나의 손에는 꿈에도 그리던 해기사면허장(갑종2등항해사)이 쥐어져 있었다. 그 종이쪽지 하나야말로 원양항해를 가능케 하는 창이자 방패였다.

운도 좋았다. 마침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타 산업 분야에 앞서 신조선 건조에 속도가 붙은 덕분이었다. 당시 나라 형편은 매년 춘궁기면 보릿고개를 넘기기에도 벅차해 할 만큼 가난한 처지여서 달러벌이에 총동원되었으나 기껏 수출품이라는 것이 농촌 처녀들의 생머리로 만든 가발이나 쌍방울 표 메리야스가 고작이던 시대였다.

그 판에 생전 듣도 보도 못 한 참치라는 물고기가 나왔다. 톤당 500달러씩의 아주 비싼 값으로 팔리는 그 생선은 유럽인들이 최고로 치는 기호식품이었다. 게다가 어자원도 풍부하여 웬만한 배들은 매년 1천 톤씩의 어획량을 달성하고 있었다. 척당 50만 달러나 되는 그 돈이야말로 가발이나 내의를 산더미로 수출하는 것보다 더 값진 알짜배기 돈다발인 것이었다(그만큼 원양어업의 기여도는 높았다).

하지만 고기를 잡자면 우선 번듯한 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전국이 초토화되고, 선박마저 거의 망실된 처지에서 원양으로 내보낼 배가 있을 턱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부려먹다 남은 중고선을 몇 척 사서 남태평양으로 출어시켰는데, 그럼에도 그 벌이가 여간 쏠쏠하지 않아 드디어 정부의 용단으로 우리 손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미래 수산 및 조선강국으로 부상할 터전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내가 훈련소를 수료하던 때에 맞추어 한두 척씩의 배가 진수되면서 힘찬 뱃고동 소리가 오륙도 너머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동기생 가운데 맨 먼저 고려원양(주) 소속 350톤짜리 '광명 53' 호에 승선하게 되었다. 거의 만점 가까운 학과 점수에 실습성적도 나쁘지 않은 덕분이었다. 이로써 나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원양어선 항해사가 된 것이었다(서울대에는 항해학과나 어로학과가 없다).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항해에 나설 배의 조타실에서 침로를 따라잡을 타륜(舵輪)을 쓰다듬는 순간 매서운 눈초리의 키잡이 청년이 그려진 포스터가 떠오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다음해 1월 8일, 수료하고 겨우 일주일 만에 출항 길에 올랐다. 목표 어장은 남태평양이 아닌 반대편의 인도양. 회고해보면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인 200톤급 '지남호'가 사모아로 출어한 지 꼭 10년이 지난 때였다. 그 동안 남태평양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 시맨스클럽에서 패싸움을 벌인 대만선을 합쳐 무려 100여 척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서 차츰 차츰 어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앞 다투어 새 어장을 찾아 나섰는데, 뜻밖에 인도양에도 남태평양 못지않게 참치가 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냉엄한 대자연 속에서 생사 넘나드는 사투

바다는 과연 광활한 대우주였고, 한 뼘 보쪽에 불과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제어가 불가능한 대자연이었다. 잔잔할 때면 적막의 중압감이 온몸을 짓눌렀고, 몽니라도 부리기 시작하면 배는 부풀어 오른 황파(荒波) 속에서 말 그대로 일엽편주 신세가 되었다. 도대체 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세상을 뒤엎어대는데도 어떻게 지구가 중심을 잡고 있단 말인가.

조업을 하다보면 들려오는 말이라야 어느 배는 어디서 좌초했고, 어쩌다가 침몰했으며, 또 어느 배에서는 실종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다는 흉흉하고 소름 끼치는 통신문뿐이었다.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만 유유자적, 평화로운 항해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말 그대로 천국을 왔다갔다하는 불의의 사고는 항다반사로 갑판 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당직에 대비하여 작업이 끝나기 두어 시간 전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따라 해류가 워낙 강하여 어구가 뒤죽박죽이 되는 바람에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도 전날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핏 잠결에 들으니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았더니 선장이 사지를 늘어뜨린 채 누군가의 등에 업혀 상갑판으로 올라오고 있지 아니한가. 작업이 지연되자 선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갑판으로 내려간 선장이 고속으로 감겨 올라오는 낚시에 꿰어버린 것이었다. 3.4인치나 되는 커다란 낚시가 사정없이 오른쪽 손바닥을 관통한데다가 팔뼈까지 부러지는 2중의 사고였다. 배에는 의사가 없는지라, 우선은 기관장이 끝머리만 보이고 있는 낚시의 미늘 쪽을 기계를 수리하는 펜치로 물려서는 사정없이 빼냈더니 그 동안 출구를 찾지 못해 안달이던 시뻘건 피가 분수처럼 뿜어 나왔다. 마침 배에는 군에서 군의관 조수 노릇을 한 선원 하나가 있어서 널빤지 조각으로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끝낸 다음 서둘러 인근 항구로 달려가는 엉뚱한 항해를 연출한 게 그 하나였다(그 바람에 배는 근 보름 동안이나 조업에 임하지 못 했다).

그 며칠 후, 어느 갑판원은 펄떡거리는 돛새치의 굵고 기다란 주둥이뿔에 장딴지를 관통당하는 참화를 당했다.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입을 틀어막고 돌기가 촘촘한 주둥이뿔을 빼내자 살덩이가 한 움큼이나 딸려 나온 것도 목불인견의 횡액임이 분명했다.

나 역시 몸부림치는 상어를 다루다가 얽힌 줄에 손바닥이 휘감기면서 갑판으로 나뒹굴었는데, 다행히도 한 선원이 칼로 상어 등덜미를 재빨리 썰어낸 덕분에 지금껏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한 가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고향에서 과수원이나 건사하고 있어야 할 농부가 황파만장인 이곳까지 나온 이유가 무어냐는 자문이었다. 매일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바다로 나온 것은 그 흔치않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편의 멋들어진 해양작품을 탄생시키자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심야당직 중이면 조타실의 흐린 불빛 아래서 항해기에 진배없는 온갖 체험을 써나가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다시 보는 부산 ⑯ / 감천 문화마을

'사람 사는 냄새'로 관광객 끄는 산비탈동네

글/사진 김형윤(18회, 김형윤편집회사 대표)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 아미동과 감천을 잇는 높이 200미터의 반달고개가 있다. 그 고개를 끼고 경사가 급한 산비탈을 따라 감천을 향해 아래로 흘러내리는 마을이 있다. 네다섯 해 전 지방공무원들과 예술가들이 이 마을의 낡은 집들과 골목들에 색칠을 하고 벽화를 그리고 길가에 조각품 몇 개를 세운 다음 이곳을 '문화마을'이라고 불렀다. 그 뒤로 이곳은 '감천문화마을'이 되었다.

감천문화마을 전경. 1955년에 생겼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의 루핑 지붕이 함석이나 슬라브로 바뀌었고 새로 지어진 집도 늘어났으나 기하학적인 마을 배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태극도 신도들이 산비탈에 급조한 '계획도시'

원래 이곳의 이름은 '태극도 마을'이었다. 내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불리었다. 이 마을은 1955년 가을에 갑자기 등장했다. 그때까지 초가집 몇 채와 작은 솔밭 말고는 온통 헐벗은 황무지였던 산비탈에 그 해 7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사이 집이 8백 채, 인구 4천명의, 요즘 말로 하자면 신도시가 태어났다.

조선 말기에 전래의 민간신앙에 동학사상을 더하고, 거기에 유교, 불교, 기독교까지 여러 종교의 장점을 통합하는 신종교 운동이 있었다. 증산교라고 불린 그 신종교에 뿌리를 둔 것이 태극도이다(태극도는 스스로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철제라는 이가 처음에 '무극대도'를 창시했다가 광복 후에 '태극도'로 이름을 바꾸었다. 1948년에 조철제는 전라북도 태인에서 문도들을 거느리고 부산의 보수동으로 거처를 옮겨왔다. 태극도의 본부가 옮겨온 것이다. 이어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충청도, 전라도에 많았던 문도들이 피난 삼아 보수동으로 모여들었다. 그 시절 부산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의 판자촌으로 뒤덮이다시피 했다. 그리고 큰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부산시에서는 조철제에게 보수동에 모여 있던 태극도 사람들을 데리고 도시 바깥으로 옮겨갈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4천 명 문도들이 감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옥녀봉과 천마산 아래 산비탈에 달려들어 길을 내고 집터를 닦고 돌과 흙을 지고 나르는 대역사를 벌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마을은 한국 현대 건축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산을 등지고 남향으로 바다를 굽어보는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집들이 층층이 줄을 지어 자리를 잡았다.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줄과 줄 사이에 좁은 골목을 두었다. 같은 줄의 집들은 서로 간격을 두지 않고 벽을 이어 지었다.

가파른 층계길 좌우로 이랑 같은 좁은 길이...

나는 4년째 이 마을을 찾고 있다. 네 계절에 한번 정도씩은 방문하는 셈이다. 내가 처음 갔을 때가 이른바 '문화' 마을 만들기 작업이 막 시작된 다음이었다. 화장한 여자얼굴처럼 벽에 색칠을 하기 전에 왔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그 때 했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화장을 했더라도 어김없이 좁고 어둡고 시궁창 냄새 밴 골목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골목이다. 길 아래에서 산비탈 따라 위로 올라가는 골목은 층계로 된 길이다. 여러 골목들 중에서 가장 긴 것은 층계가 1백48개이다. '별 보러 가는 계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층계 좌우로 집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그 줄들 사이에 이랑 같은 좁은 길이 윗집 칸과 아랫집 칸을 나누며 좌우로 길게 이어진다.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벽이며 현관문이 일색으로 표정이 없는 데 비해 이곳은 다르다. 집집마다 벽과 문의 표정이 제각각이다. 길바닥도 표정이 다르다. 바닥이 모두 매끄럽지 않다. 시멘트가 깨어져 있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하다. 집 앞에 놓인 화분들도 크기며 모양이며 색깔이 제각각이다. 고양이가 집 앞에서 태연히 놀기도 하고 쫀살갑이 달아나기도 한다. 앞집 지붕을 가리며 세워둔 건조대에서 나부끼는 빨래들이 얼굴에 스친다. 마른 생선들도 공중에서 냄새를 풍긴다. 나이든 아낙네들이 작은 의자들을 내놓고 벽에 바싹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도시생활에 오래 젖어온 나로서는 여기에 와서 이 골목들을 돌아다니는 동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낡고 작은 집들에 배어 있는 궁핍 또는 결핍이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까지 싸안아서 고향에 온 느낌이 든다. 아마도 내가 부산에 살면서 어릴 적부터 이런 풍경에 익숙해서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은 본디 이 같은 결핍을 만나면 마음이 좀 겸손해지고 가라앉는 것 아닐까?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의 하나다. 카메라를 손에 쥔 관광객들이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미로처럼 퍼진 골목들을 누빈다.

70년대부터 빈집 늘자 '문화'로 마을살리기 나서

감천문화마을은 지금 집이 대략 4천5백 채, 인구는 1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집 8백채 인구 4천명에서 시작했던 신도시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1960년대 후반에 집 3천 채, 인구 1만5천명에 이르렀다. 그 때가 태극도의 전성기이자 이 마을의 전성기였다. 지금 태극도 본부가 있는 동네 아래편의 중심가는 한때 '제2의 남포동'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번화했다고 한다.

그렇게 번성했던 태극도마을이 기운을 잃기 시작한 것은 1969년을 전후하여 내분으로 두 파로 나뉘었고, 한 파가 이곳을 떠나간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1970년대를 관통했던 조국근대화의 바람으로 세상이 살기 편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였다. 조국근대화는 주거생활에서 화장실 혁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온 이곳 주민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집 안에 들여놓기에는 사는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 조국 근대화는 자가용 승용차를 요구했지만 이 마을은 자동차가 다니기에 길이 너무 좁고 비탈이 험하다. 그런 점들이 젊은이들을 이곳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했고, 빈집이 날로 늘어나게 했다.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산비탈 동네가 많은 부산에서도 이곳만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은 없다. 그래서 부산시가 생각해낸 것이 '문화'였다. 문화는 문명과 꼭 나란히 가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화장실이 불편해도 존재할 수 있고, 자동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문화'에 이 마을의 미래를 걸었다.

주민들이 더위와 넘치는 관광객들을 피해 골목 그늘에 숨듯이 모여 앉아 있다. 주택 4천5백채 중 2백채 이상이 비어 있고, 주민 1만 명 중 대부분이 고령자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름 한낮, 이 마을의 중턱에서 남쪽의 감천 바다를 내려다본다. 시원한 바람이 술렁술렁 쉴 새 없이 불어 올라온다. 나도 여기 집 한칸을 마련해 살아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동안에는 들지 않았던 생각이다. 이곳이 지닌 불편함이 어느새 내 몸에 익은 까닭일까?

김성언 동문의 漢詩 산책 ⑤

무정한 봄날은 벌써 가려 하는구려

김 성 언
(24회, 동아대 교수, 한국한시학회장)

"놀이는 마치 순수 기하학처럼 인류의 지적 유산의 산출에 기여... 그 중에서도 시(詩)놀이는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지식계층이 누렸던 가장 호사스럽고 지적인 놀이였다"

서양에서 놀이란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규명한 최초의 사람은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호이징가(Johan Huizinga, 1872~1945)였다. 물론 독일시인 쉴러가 일찍이 놀이를 찬미하긴 했으나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수준의 논의였으며, 호이징가에 와서야 비로소 놀이는 인간의 본질적 영역이자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화려하게 부각된 것이다.

대체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반적으로 놀이는 하릴없는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으니, 유명한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가 그 대표적 예다. 특히 인류사의 차축(車軸)시대를 이룬 이념과 종교의 스승들은 다들 입을 맞춰 나무그늘 아래서 빈둥거리는 논다니들을 꾸짖고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을 칭찬했다. 멀리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성 프란치스코 계열의 수도원, 가까이는 청도 운문사를 가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교훈을 실천해 진리탐구의 여가에 땀 흘리며 일하는 수도사들과 스님들을 볼 수 있다. 노동의 가치를 인종청소에 써먹은 악마는 히틀러와 그 수족 히틀러였다. 홀로코스트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입구에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Arbeit macht Frei)"라는 문구가 걸려있다. 일하는 것은 선이요 노는 것은 악이라는 등식은 언제나 절대 진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놀이야말로 노동 못지않게 사회적으로는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개인적으로는 지적 발달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다. 놀이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생산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마치 순수 기하학처럼 인류의 지적 유산의 산출에 기여해왔다. 사실 놀이는 인간 정신에 있어 자유와 창의를 계발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들이 놀이를 통해 우주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터득해나가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시(詩)놀이는 지식계층이 누렸던 가장 호사스럽고 지적인 놀이였다. 호이징가에 훨씬 앞서 놀이의 중요성을 외친 사람을 굳이 들라면 이태백이 바로 그다. 그가 족친들과 어울려 시 쓰고 술 마시며 썼던 <봄 밤 도리원에서 잔치하며(春夜宴桃李園序)>를 읽어보면 호이징가가 명저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에서 놀이에 대해 제시했던 모든 이론이 응축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덧붙여 시모임에서 전제되는 암묵적인 규칙, 가령 좋은 시를 짓는 경쟁을 하되 모든 사람의 화합과 즐거움을 우선할 것, 제대로 시를 짓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주를 내려 즐거움을 배가할 것, 나이 들었다고 잰 체 말고 겸손히 아랫사람을 배려할 것 등은 배운 자의 놀이판이 지녀야할 격식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조선 선조대의 문신으로 당대 최고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지었던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가 강원도 관찰사 이중량(李仲樑)과 시놀이에서 주고받은 시를 읽다보면 그 담담한 우정이 정말 좋아 술 생각이 절로 난다. 먼저 이중량이 읊고 갑은 운으로 초간이 받았다.

술 담아 놓았을 땐 그대 오지 않더니
봄 저물어 갈 때에 마침내 오셨구려.
이 봄 가면 그대 또한 가버릴 터이니
강촌의 이 늙은인 어찌하잔 말인가.
有酒客不到, 客來春已暮.
春歸客亦歸, 奈此江村老.

그대 집 술 생각나 다시 찾아 왔건만
무정한 봄날은 벌써 가려 하는구려.
애오라지 한 단지 술일랑 권해서
향산의 이 늙은이 위로해 주시게나.
有意客重到, 無情春易暮.
聊將酒一壺, 慰我香山老.

禿筆雜記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 어렸을 적에 들었던 우리 국군의 군가들 중에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아~ 이슬 같이 죽겠노라"로 끝나는 군가가 있다. 김일성의 6.25 기습남침으로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리는 등 조국의 운명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風前燈火)였을 때 우리 국군이 불렀던 군가다. 당시 우리 국군은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심 하나로 적의 진지를 향해 돌격했다가 많은 이들이 풀잎의 이슬처럼 사라져 갔다.

▶ 흔히 '양양가(襄陽歌)' 또는 '초로가(草露歌)'로 알려진 7.5조의 이 군가의 가사는 짧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비장(悲壯)하다. 전문은 이렇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草露)와 같고 / 이씨조선 오백년 양양(襄陽)하도다 /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 아~ 아~ 이슬 같이 죽겠노라. 이 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씨조선 오백년 양양하도다'라는 부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일어난 전쟁에서 우리 국군이 왜 이미 사라지고 없는 '이씨조선'을 느닷없이 외쳐댔는지 그것이 전부터 항상 궁금했었다.

▶ 최근 자료검색을 해보니 이 군가는 구한말(舊韓末) 초기 때부터 불리어 졌던 군가였다고 한다. 정부 수립 후 구한말에 불렀던 군가를 가사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부른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씨조선 오백년'이 마음에 걸렸던지 나중에는 문제의 부분을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또는 '대한민국 앞날은 양양하도다'로 바꿔 부르기도 한 모양이다.

▶ 지난 4월 말 모교 교정에 세워진 '성찰의 집' 입구쪽 철판벽면에는 참전 동문들과 전사동문들을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이 기림글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갔던 우리 동문들, 그리고 전장에서 쓰러져 끝내 구덕산 모교로 돌아오지 못했던 동문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 현재까지 파악된 6.25전쟁 참전 동문 수는 총 3백18명이며 그 중에서 전사자는 35명이다. 자칫 '무명용사'로만 남을 뻔 했던 참전 및 전사동문들의 이름이 종전 60년 만에 확인된 것이다. 한분 한분의 이름에서 당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이라는 군가를 부르며 용감하게 전선으로 달려갔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동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는 곧 참전 및 전사동문의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성찰의 집'의 철판벽면에 새길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성찰의 집'은 비로소 완공됐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우〉

■ 포토갤러리

관전은 "OK"...훈수는 "NO"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절모를 쓴 선배와 그보다는 한참 젊어 보이는 후배가 바둑판을 앞에 두고 수읽기에 여념이 없다. 어느 쪽이 둘 차례인지는 모르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둘러서서 관전하는 동문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진지하다.

지난 6월 30일 낮 모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용마바둑대회장의 풍경이다. 2년 만에 열린 이날 대회는 기별대항전으로 치러졌다. 각 기수별 대표선수 60여명이 참가, 급수를 따져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기별로 양보 없는 대국이 이어졌다.

용마바둑대회가 모교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둑대회 덕에 오랜만에 모교에 올라와보니, 기분이 참 좋네."

"내년에도 모교에서 바둑대회를 하면 좋겠네요."

참가한 선수들이나 관전자들이나 모두들 모교에서 바둑대회를 연 것을 반겼다.

◇ 이 '포토 갤러리'에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어 드립니다. 보낼 곳 = yongmanews@gmail.com

■ 박태환 동문의 '실전 골프' 특강 ② – 임펙트

때리지 말고 클럽헤드를 '뿌려서' 공을 쳐내라

박 태 환
(30회, 미안마 양곤 거주)

골프스윙은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다. 프로골퍼들을 봐도 그렇다. 하지만 한번 자기 스윙습관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스윙습관을 바꾸기란 정말 힘들고 어렵다. 따라서 처음 골프를 배울 때 기본기를 착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고생을 하게 된다.

골프스윙은 단순해야하고 그 습득방법이 쉬워야한다는 게 필자의 지론이다. 아무리 좋은 스윙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습득하기가 힘들고 또한 실수하기도 쉽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 임펙트 때의 왼쪽 팔목 및 손목 동작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관절의 기능과 골프스윙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공을 가지고 하는 모든 운동은 공을 가속시킬 때는 해당부위의 관절을 이용한 그 부위의 스냅(snap)으로 공을 가속시킨다. 하물며 정지되어있는 골프공에 가속을 붙이려면 최고속도로 공에 접근해 오는 헤드스피드를 '왼쪽 팔목의 턴 스냅'으로 손실 없이 공에 전달해야(비거리)하며, 목표방향으로 공을 보내려면 '그 턴 스냅의 동작과 타이밍'이 정확해야(방향)한다. 골프스윙은 이 두 가지를 필요충분조건으로 동시에 만족시켜야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임펙트 시의 왼쪽 팔목 및 손목 동작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임펙트를 하는 방법'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들이 임펙트하는 것을 단순히 헤드로 공을 때려 멀리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임펙트 시에 '공을 때린다'는 것이다. 골프스윙의 임펙트는 헤드로 공을 때려 쳐내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뿌려(던져) 그 뿌려진 헤드로 '공을 쳐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뿌려진(던져진) 헤드에 공이 맞아나가는 것이다.

전자의 '때려'와 후자의 '뿌려(던져)'는 내용상으로는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임펙트 시에 '수축된 근육'을 사용, 힘을 이용하게 되며 후자는 임펙트 시에 '이완된 근육'을 사용한 헤드 스피드를 이용하게 된다. 만약 전자의 방법으로 공을 칠 수만 있다면 힘이 센, 근력이 좋은 사람들이 PGA시합을 휩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후자의 경우처럼 헤드를 뿌려 공을 쳐내려면 임펙트가 이루어진 그 다음의 동작 즉 팔로스윙의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처음 골프를 배울 때 바로 이 임펙트와 바로 연결되는 팔로스윙의 동작 즉 헤드를 뿌려내는 동작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평생을 두고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우리말 우리글 바르게 씁시다

너무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고 해야

– 괜찮아/괜찮어 둘 다 바른 표현인가요? 특히, 후자요. 그리고 의미상의 차이가 있나요?

답= '괜찮아'가 옳은 표기입니다.

– "그것엔 분명 야로가 있어" 라는 문장에서 "야로"는 무슨 뜻인가요?

답='야로'는 남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는 속셈이나 수작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 '홍길동씨'라고 붙여서 적는 것도 허용이 되나요? 전 안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쓰인 기사에서 '?씨'를 붙이는 게 많이 보이네요.

답='홍길동∨씨'로 띄어 씁니다. 의존 명사 '씨'는 앞의 말과 띄어 씁니다.

– 천번을 다시 '태어난대도'가 맞는지 아니면 '태어난데도'가 맞는지요?

답='태어난대도'가 옳은 표기입니다. '–ㄴ다고 하여도'가 줄어든 말은 '–ㄴ대도'입니다.

– "너무 아름답다"에서 '너무'는 부정의 뜻이어서 "참 아름답다"라고 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답=네,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뜻이므로, 부정적인 판단과만 어울리는 말입니다.

〈답변 = 국립국어원〉

연재를 시작하며_

이번 호부터 〈우리말 우리글 바르게 씁시다〉를 연재합니다. 요즘 우리말과 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그러 합니다. 우리 동문들이라도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용마 지상 갤러리 / 박윤성 동문의 금강산 귀면암

귀면암 / 2002년, 캔버스에 유화. 193 x 130cm

□ 작가노트

북한관리에게 "화가"라고 밝혔다가 혼쭐

백수 그림쟁이로 방황하던 나에게 아내가 "당신 금강산이나 다녀오소"라고 권했다. 아내의 말은 술에 찌든 이 몸을 확 깨워 주었다.

금강산에 들어 갈 때 검문하던 북한의 관리가 "뭐 하십니까?"라고 묻기에 "화가"라고 답했다가 봉잡혀 혼쭐이 났다. 아내가 금강산 관광신청서에 '무직'이라 썼기 때문이다. 북쪽에서는 화가라는 직업을 대단하게 보는 모양인지 왜 거짓말로 신분을 감췄냐며 협악하게 나왔다.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금강산구경을 못할 뻔했으나 우리 관광팀들의 설명과 간청으로 벌금을 물고 풀려났다.

아! 금강산! 스케치북을 손에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금강과 묘향산을 그리러 갈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박윤성(24회, 화가)〉

시 산책

노근이 엄마

정 호 승

내 가장 친한 친구
노근이 엄마가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
청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부터
나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오줌을 깨끗하게 눈다
단 한 방울의 오줌도
변기 밖으로 흘리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노근이 엄마가
원래 변기는 더러운 게 아니다
사람이 변기를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의 더러운 오줌을
모조리 다 받아주는
변기가 오히려 착하다
니는 변기처럼 그런 착한 사람이 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정호승 시인 = 1950년 대구에서 출생. 경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졸업. 1972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가 당선.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새벽편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등.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편운문학상 등 수상.

엉터리 농사꾼의 전원일기 ⑤

"그 개 잡아서 보신탕 파티를..." 솔깃한 제의에...

김 재 환
(18회, 전 한림대 영문과 교수)

일러스트 = 이철원(조선일보 기자)

국문과 오 교수가 소문을 낸 모양이었다. 학교에 가면 만나는 교수들마다 우리 밭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어디 얼마나 잘 해 놓았는지 구경이나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직 엉성하고 서툴러서 보여드릴 게 없어요."

"원두막도 지었다면서요. 거기서 막걸리 한 잔 걸치면 조오캤네."

주말농사를 짓는 교수들이 몇몇 생겨서 그런지, 교수휴게실에서는 농사 이야기가 종종 화제가 되곤 했다. 모두가 왕초보들이고, 짓는 평수도 얼마 되지 않아 농사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전문농사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

교수 휴게실에 '보신탕 파티' 공고문 붙여

나는 그 화제에 '밉상' 이야기를 꺼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겪는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농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 개를 잡아서 보신탕 파티를 벌입시다."

보신탕 파티? 그렇잖아도 "밭을 공개하라"는 성화에 들볶이던 참이었는데, 그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나는 그 주말에 밭에 나갔다가 안씨를 만나자마자 제안을 했다.

"저기요, 우리가 저 원두막에서 보신탕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요....왜 그 말썽쟁이 개 있잖아요....그 개를 좀 잡아서 끓여주실 수 있나요?"

안씨는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했다. 나는 개 값과 잡는 비용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개를 잡아야 한다는 다짐을 받았다.

나는 아내와 의논하여 그 다음 토요일로 날짜를 잡고, 교수휴게실 게시판에 '파티공고문'을 붙였다. 그 공고문에는 보신탕 못 먹는 교수들을 위해서 닭요리가 준비될 것이라는 추신도 넣었다. 그런데 아내가 걱정을 했다.

"그 아저씨가 지난번처럼 그 개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는 잡는 체만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잡을 거야. 돈 버는 일인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도 은근히 속으로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안씨가 그 개를 못 잡을 경우 근처에 있는 보신탕집에서 개고기를 사온다는 비상책까지 마련해 두었다.

'밉상' 체포작전...그물채에 엽총까지 준비

마침내 그날이 와서 아침 일찍 밭에 나가보니, 안씨가 벌써 우사 옆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불 지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 동원되어 있었다. 그들은 미끼로 쓸 삶은 고깃덩어리와 그물채 그리고 엽총을 준비하여 '밉상'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개는 주인이 부르자 처음에는 고깃덩어리에 현혹되어 멋모르고 다가왔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느꼈는지, 이내 꽁무니를 뺐다. '밉상'은 우사 속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마침내 우사 밖으로 빠져나갔다. 안씨가 엽총을 들고 따라가 보았지만, 개는 산 쪽으로 도망가 버렸다.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버린 안씨가 내게 다가와서

"저, 교수님, 다른 개로 잡아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속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 다른 개는 백 마리를 잡아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다짐을 했잖아요. 다른 개는 안 된다고!"

안씨는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물러갔다. 나는 재빨리 인근에 있는 보신탕집으로 달려가서 개고기를 몇 근 사가지고 왔다.

'밉상'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살기(殺氣)를 느껴도 단단히 느꼈던 모양이었다. 게다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에는 우리 밭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들쥐 등쌀에 옥수수와 참외 농사 망쳐

'보신탕파티'는 그렇게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쥐가 문제였다.

6월이 되자 옥수수의 키가 훌쩍 커졌고, 7월에는 마침내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다. 거름이 시원찮았는지 열매의 크기는 작은 편이었다. 알고 보니 옥수수는 다비성(多肥性) 작물이라 복합비료 한 숟가락 가지고는 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 눈에는 작은 몸집에 삼베 같은 옷을 두르고 수염을 달고 있는 옥수수의 모습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그 수염이 마르면 열매가 다 익은 것이라고 영감님이 가르쳐 주었다.

드디어 그 수염들이 말라서 수확을 하러 간 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많은 옥수수 열매가 모조리 알갱이는 사라지고 깡탱이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영문을 모르고 서 있는 우리에게 영감님이 오더니 "들쥐 떼의 소행"이라고 일러주었다. 들쥐는 옥수수 열매가 익었는지의 여부를 귀신같이 안다는 것이었다. 고생고생해서 심어놓은 옥수수를 한 자루도 먹어보지 못하다니!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 했던가, 들쥐들의 후각(嗅覺)을 자극하는 작물이 옥수수 외에 또 하나 있었다.

비닐하우스에 심은 놓은 수박과 참외는 '밉상'의 피해를 좀 입긴 했지만,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었다. 거름이 약했든지 이들 역시 크기에서는 볼품이 없었다. 하지만 개수는 제법 되었고,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참외 한 개가 노란빛을 띠는 것 같아서 성급하게 따보았으나, 아직은 제대로 단맛이 들지 않았다. 한 주일을 더 기다렸다. 마침내 참외 몇 개가 샛노랗게 단맛이 들었으나, 아, 이번에도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들쥐 떼가 귀신같이 단내를 맡고 와서 모조리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수박은 피해가 없었다. 수박은 껍질이 두꺼워 들쥐들의 후각을 자극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한형조 동문의 古典閑談 ⑨

제 얼굴만 보고 사는 우물 속의 '꼰대'들

한 형 조
(3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우물 속에서 벗어나면, 놀랍게도,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숲 속에서 문득 듣는 새소리처럼 아내의 젖은 손이 보이고, 성적에 짓눌린 아이의 신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어느 작가가 평론가 친구를 만났다. 최근 쓴 소설에 대해 신나게 30분을 떠들더니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아, 참 너무 내 얘기만 했군... 어디 자네 얘기를 들어보지..." 그러면서 덧붙였다. "자네는 내 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화라고 만난 자리가 다 독백으로 채워진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다들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난다. 이곳은 '작은 시장'이다. 안달하는 입과 마지못한 귀의 줄다리기가 테이블마다 낭자하다. 시장이 늘 공정하지는 않다. 페킹 오더(pecking order), 즉 누가, 얼마만큼, 어떤 순서로 마이크를 쥘 것인가. 근엄하게 단상에 오르는 분들을 보면서, 삶이 저 마이크를 잡으려는 필사적 사투가 아닐까 하는 상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정작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노래방의 풍경도 다를 바 없다. 한사코 마이크를 쥐 놓고는 정작 노래가 시작되면 삼삼오오 대화(?)에 몰두하거나, 두꺼운 책을 펴들고 열공(?) 중이다. 노래는 가라오케 기계와만 놀고 말은 저 홀로 공중에서 외롭다. 청중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나.

장자 '추수(秋水)' 편에 실린 이야기 하나.

"깨진 우물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다. 동해의 자라가 우물을 기웃거리자, 개구리는 신나게 침을 튀겼다. '유유히 헤엄치다 피곤하면 깨진 우물벽 틈에 쉰다. 그 즐거움을 아실래나? 어디 이리 한번 들어와 보시게.' 자라가 발 하나를 들이밀기도 전에, 다른 쪽 무릎이 걸렸다. 자라는 두고 온 고향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은 천리(千里)로도 그 넓이와 깊이를 재지 못하지. 9년간 퍼붓는 홍수에도, 7년간 타들어가는 가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야. 이것이 바다의 즐거움이지.' 그 말을 듣고 개구리는 깜짝 놀라 얼이 빠져 버렸다네."

우물은 '자기'라는 감옥을 말한다. 흡사 나르시스처럼 그는 '사물'을 볼 수 없다. 개울 속에 비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얼굴뿐이니... 일본의 어느 여인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남편이 몰래 들인 첩년으로 알고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우리네 삶이 과연 유아기를 벗어난 것일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던 그 시절"을... 나이가 들수록, 자부(?)와는 달리, 우물의 동그란 하늘은 점점 좁아진다. 삶은 루틴해지고 익숙해진다. 저항이 줄고 대응이 빨라지는 만큼 물길 바깥쪽의 제방은 더 높이 올라가 급기야 저 편이 보이지 않는다. 자라나는 세대는 도무지 외계인들 같고, 변화하는 환경을 캐치하는 센스는 둔화된다. 이 '경화'를 시쳇말로 '꼰대'라 부른다.

대책 없이 딱딱해진 호두껍질을 깰 수 있을까. 그리하여 사물들을, 비틀즈의 노래처럼 렛잇비, 그들 자신에게로 돌려줄 수 있을까. 하이데거는 이를 '사물들 자신이도록 놓아준다(Seingelassen)'고 표현했고, 어느 선사는 "내가 우물을 엿보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나를 엿보고 있다"고 시침을 뗐다. 우리의 미당 어르신도 한 말씀 거들었으니, 내리는 흰 눈발 속에서, 아무 것도 묻지 않고, 그저 "괜찮다, 괜찮다"고 읊조렸던 것이다.

그 '자기' 탈각 속에서, 놀라와라, 그동안 묻혀 있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숲 속에서 문득 들린 새소리, 꽃이 벙그는 환희처럼... 아내의 젖은 손이 보이고, 내 무심한 기대로 상처받은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보고 들리기' 시작하는 곳, 그곳이 왈, 깨달음이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조용히 권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듣는 버릇을 기를 것. 될 수 있는 한, 말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들을 것."

龍馬 醫窓

일단 기본치료부터 하는 게 중요

김 법 영
(33회, 김&정 해운대병원 원장)

4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한 달 가량 계속 두통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아왔다. 머리를 MRI촬영을 하는 등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다만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고혈압진단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분들에게 고혈압약 복용을 권하면 상당수가 거부반응을 보인다. "이 나이에 벌써부터 혈압약을 먹어야 하냐"며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때 가서 혈압약을 먹겠다"고 한다. 그리고 "고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한다는데...", "고혈압약을 먹으면 힘이 없다던데..."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앞세우곤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환자를 설득하는 일에는 이제 나도 이력이 나 있다. 고혈압 상태를 내버려두면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증이 빨리 진행되고 그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등 고혈압은 '무언의 살인자'라고 자세히 설명해준다. 우선 '하루에 한번, 한 알 복용'으로 고혈압을 일단 정상치로 낮추고 난 뒤에 운동, 식이요법 등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권한다.

의학 분야에서 최근 20~3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과 항암 치료약 등 각종 약제의 개발이다. 사실 이전에는 혈압약도 하루에 두세번이나 복용해야 했고 장기복용 시 부작용도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하루 한번 복용으로 혈압이 조절되고 불편을 느낄 만큼의 부작용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 운동 등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 당뇨, 고지혈증 등 모든 성인병도 마찬가지다. 일단 '기본 치료'에 충실해야하는 것이다.

동의의료원에서 뇌졸중환자를 전문으로 보고 있을 때다. 당시 건강하던 60대 초반의 장모님에게서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해보니 중요한 숨골에 혈관이 막혀 있었다. 다행히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해 완쾌됐는데 그 때 고혈압임이 발견돼 현재까지 15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지금 75세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 그 후 손아래 처남 3명도 40대 후반이 되니 순차적으로 고혈압이 생기고, 장녀인 집사람도 50세가 되니 혈압약을 먹게 되었다. 모두 다 한 알의 약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

요즘은 암에 걸렸다가도 나은 경우도 흔히 본다. 암에서 나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병원에서 기본적인 항암 치료를 충실하게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치료들을 추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척추질환도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의를 선택하여 아플 때마다 가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 저것 해보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병원에 오면 치료가 그만큼 더 어렵다. 모든 질병은 기본적인 치료부터 우선 충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중고동창회보〉
동문들만 보는 신문이 아닙니다
동문 가족이 더 열심히 읽습니다
회보제작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3년도 구독료(년 3만원)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마 에세이

친구의 죽음

조 동 준
(11회, 전직 의사, 로스엔젤리스 거주)

오래 전의 일이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기인 P로부터 "유명한 의사 한사람 소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큰 혹이 발견되어, 개복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아는 의사를 소개해주었고 수술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내가 소개했던 의사로부터 "약속된 수술날짜에 환자가 병원에 나타나지를 않아 낭패를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 P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한약을 먹고 병이 완쾌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그렇다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서 혹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

그 후 6개월쯤 지나고 P는 병세가 악화돼 결국 UCLA 대학병원에 입원해 고명한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어두운 진단을 받았다. 병상에서 죽음의 공포와 생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보이며 눈물짓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며 우울했다.

처음부터 입원비가 많을 줄은 짐작했으나 그동안의 병원비가 무려 35만달러나 나왔다. 이런 엄청난 액수가 나왔는데도 그 친구는 의료보험이 없었다. P의 가족이 현찰을 가득 싸들고 병원비를 지불하러 갔더니 병원 측이 깜짝 놀라 경비원을 불러놓고 돈을 세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 2년 후 P는 갑자기 각혈을 했고 급히 그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응급실은 보통 3시간 이상 걸리는 바쁜 곳이다. 각혈을 하는 상태에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니 P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미리 주치의에게 연락은 하고 갔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다가 영어도 유창하지 못하니 쉽게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자연히 언성을 높이고 불만을 토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던 모양이다.

이에 놀란 병원 측에서 환자를 묶어놓고 주사를 주면서 환자를 진정시켰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P는 기다리던 의사의 진찰은 받지도 못한 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출혈이 문제였는지, 진정제주사가 문제였는지는 부검이 없었으니 지금도 죽음의 원인을 모른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10여년을 이곳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 보험을 들지 않고 살았다는 점, 수년간 투병을 하면서도 수시로 상담하고, 도움을 받고, 응급 시에 상의할 수 있는 주치의는 왜 없었는지, 그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병인데, 임의로 병을 판단해서, 이 약 저 약을 쓰며, 증세를 악화시키고, 전문의사의 의견을 무시했던 점 등등….

10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일이지만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지금도 내내 의문스럽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용마에쎄이 기고는
yongmanews@gmail.com

論 評

동창회 행사에서 '케이크 커팅'은 잘 하면서...

본부동창회의 모교발전기금 모금실적이 이제 겨우 10억원을 넘어섰다. 재경동창회가 모은 약 70억원에 비해 크게 대비되는 액수다. 부산에 비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이 숫자적으로나 사회활동, 경제력 등에서 앞서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초라한 모금실적이다.

문제는 본부동창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다는데 있다. 전임 회장도 그랬지만 신임 회장도 모교발전기금 모금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내버려둬도 낼 사람은 내겠지 하는 심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본부동창회의 모금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회장과 임원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아직까지 모교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동문들을 설득, 모금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일부 재력가동문들 중에서 어쩐 일인지 아직까지도 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동문들이 있다. 동창회장이 그들을 직접 만나 모금에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까지도 모금을 외면하고 있는 '일부 재력가동문들'에게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넉넉하지 못한 동문들도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정성을 모으고 있지 않은가. 평소 각종 동창회 행사에서 툭하면 동문들 앞에 나가서 '케이크 커팅'은 잘도 하면서 모교발전기금은 왜 여태까지 외면하는지 묻고 싶다. 본부동창회가 모금을 시작한 지도 벌써 만3년이 넘었다. 꼭 거액을 내라는 말이 아니다. 동문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평소 각종 동창회 행사에서 원로 또는 선배동문으로 대접받는 것만큼이라도 성의를 보여라는 것이다.

원형교사에 '역사관'을 만들자

모교 원형교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오는 10월경 문화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공식 등록될 전망이라고 한다.

원형교사가 문화재로 공식 등록되면 일단 건물의 보수 유지와 보존문제는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로부터 보수 유지를 위한 예산지원을 받게 되고 또한 함부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형교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건축사적 가치'에만 있지 않다. 우리 동문들에게 원형교사는 말하자면 '고향의 생가(生家)'와도 같은 존재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거기서 청춘의 한 때를 보내며 꿈을 키웠던 곳이다.

따라서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을 계기로 원형교사 안에 '역사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모교와 동문들, 동창회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을 모아 전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형교사 문화재 지정의 참의미를 살리면서 건축물도 제대로 보존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경남중은 이미 아담한 '용마 역사관'을 교내에 만들어 두고 있다.

원형교사의 문화재등록을 앞두고 본부동창회와 모교가 미리 머리를 맞대고 원형교사에 '역사관'을 두는 문제를 논의해주었으면 한다.

회보를 읽고…

큰 불행을 당한 동기에게 위로를...

지난 호에 실린 '모교의 원형교사 문화재 등록예고'의 기사를 읽고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기는 2년 후면 졸업한지 50년이 된다. 그 세월을 따라 원형교사도 나처럼 나이를 먹어 어느듯 '역사적 건물'이 되었다.

내가 원형교사에서 공부한 것은 2, 3학년 때였다. 나는 운 좋게도 반 배정을 잘 받아 2년 동안 원형교사의 햇빛 잘 드는 '명당교실'에서 보냈다.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은 고금의 진리인 것 같다.

'청부살해된 여대생은 우리 동문의 딸'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피해자의 아버지인 하택환 동기의 인터뷰기사를 읽고는 매우 놀랐다.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주범이 가짜 진단서로 교도소가 아닌 대학병원 특실에서 지내다 들통이 났다는 사실은 시중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공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억울하게 딸을 잃는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닌 나의 동기라는 사실은 회보를 읽고서야 알게 됐다. 충격적이었다. 큰 불행을 당한 친구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사건이 이 땅에서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태을 (19회, 대덕트레이드 대표)

편집실 메모

▶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화가 이우환이 우리 동문(10회, 경남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랑스러웠다. 경남중고가 그런 학교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수장 뿐 아니라 이 동문과 같은 세계적인 천재화가도 나온 학교다. 대단한 일 아닌가. 우리 동문들이 동창회보 지면을 통해서라도 그와 그의 작품세계를 접했으면 해서 특집을 꾸며봤다.

▶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 동문들이 나가 있다. 해외거주 동문들을 감안, 회보지면을 가급적 글로벌하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번 호에 실린 '여기는 미얀마…'와 '뉴욕통신'은 그런 노력의 하나다. 해외거주 동문들이 보내오는 글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 부산고 출신인 김종렬 전 부산일보사장이 옥고를 보내주었다. 김 사장의 말대로 "경고와 부고는 구덕야구장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겼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서로 형제와도 같은 정을 나누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고 출신들의 기고를 기대한다.

SAM 샘병원
Medical Center

환자 중심·특성화 진료로
앞서가는 샘병원

46년 전통,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안양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400병상 암특화 종합병원 G샘병원
유니세프 지정, 아기와 여성에게 친근한 샘여성병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한양방협진병원 샘한방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노인병원 및 노인요양원 OPEN 예정(2014년)

이상택(경남고 13회)
現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사장
前 제12대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회장
前 법무부 전국교정중앙연합회 초대회장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병원부문 우수 등급 의료기관
(2010년 1위, 2011년 · 2012년 2위)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샘여성병원 031 467 1000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G샘병원 031 389 3000